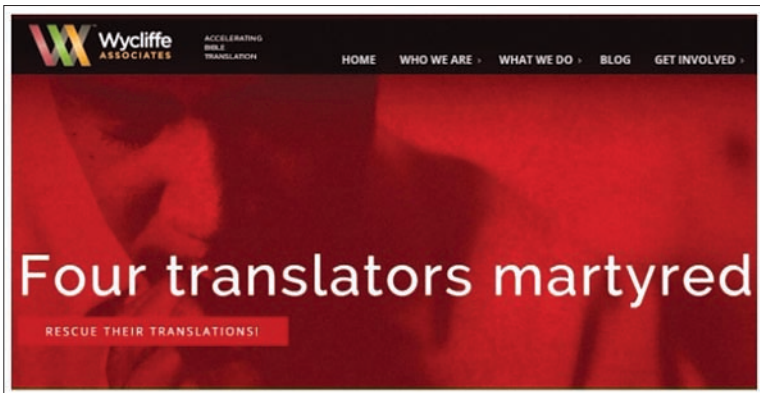


## 위클리프 “성경 번역”은 현장에서



성경 번역 단체 위클리프협회 중동 지부에서 지난 3월 초 총격으로, 4명의 사역자가 희생됐으나 나머지 소속 선교사들은 무모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위클리프협회 홈페이지

성경 번역 단체인 위클리프협회(Wycliffe Associates)는 “지난 3월 초 중동 지부 사무실에서 발생한 테러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소속 선교사들은 묵묵히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위클리프협회 브루스 스미스(Bruce Smith) 회장은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과 같은 비극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증거는 더욱 커지고 분명해졌다. 말할 수 없는 대가를 치렀으나, 초대 교부 터

톨리안의 말과 같이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된다’고 했다. 위클리프협회는 당시 4명의 선교사가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보안 관계상 사건이 발생한 국가나 희생자들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 공격의 배후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었다. 이들은 위클리프협회 사무실에 총격을 가하고, 불을 질러 모든 책과 자료를 태워버렸다. 당시 희생자 중 2명은 번역

중동서 테러로 사역자 4명 희생된 위클리프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돼  
 비극 속에서도 더욱 분명해지는 그리스도 증거

팀을 이끄는 선교사를 살려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행 중 다행으로 8개 언어의 번역 프로젝트가 저장된 하드디스크는 무사했다. 협회는 “남아있는 번역팀이 8개 언어로 된 성경을 번역·출판·인쇄하는데 감정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스미스 회장은 또한 심각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번역 업무는 현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교회는 현지인들이 있는 곳에서의 번역 작업을 더욱 선호한다. 패러다임 3.0 성경 번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와 관련돼 있다. 현장과 멀리 떨어진 번역은 지역 공동체에 미치는 효과를 감소시킨다”고 지적했다. 선교사들은 번역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비밀 장소에 새로운 사

무실을 마련하고 있으며, 긴급 모금을 진행할 계획이다. 위클리프협회를 위해 중보기도를 맡은 매그린리프 선교사는 “주님께서 끔찍한 사고를 겪은 번역팀의 마음과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미전도 종족들을 위한 성경 번역 사역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강건하게 해 주시길 기도해 달라”고 했다. 또한 “가해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셔서, 이들이 강력한 마음이 녹고 눈이 열려서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보게 하시고, 자신들의 위치를 깨닫게 해 주시기를, 주님께서 당신의 자비를 드러내셔서 그들이 주님의 용서·사랑·평화를 알게 되기를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혜진 기자

###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고함

노동은 기도다. 주님 안에서 맡은 일을 열심히 하자. 그것도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다.  
 위대한 자가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는 자가 위대한 것임을 잊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쫓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는가? 그렇다면 지금 당장 성경 읽기를 시작하라.  
 소금은 싱거운 것을 맛있게 한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맛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 주자.  
 세상은 변화될 수 있는가? 복음의 능력은 세상을 변화시킨다.  
 동일한 소식과 사건을 적은 책인데 항상 새롭게 다가온다. 바로 성경이다. 매일 읽고 매일 새로워지자.  
 위대한 요셉은 태어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위대한 요셉으로 만들어 지기를 원하는가? 그럼 고난을 환영하고 기뻐하라.

## “미시시피 의회 종교자유법안 통과” “CA공립학교에 다시 성경을”

### 연방법원은 동성커플 입양 허용

최근 하루 차이로 미시시피 주에서는 동성결혼과 관련된 상반된 결정이 발표됐다. 주 의회에서는 강력한 종교자유법안이 통과됐고 연방 법원에서는 동성 커플의 입양을 허가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달 28일, 조지아 주의 네이든 딜 주지사가 디즈니 사를 비롯한 대기업들의 압박에 굴복해 비슷한 내용의 종교자유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미시시피 주 상원은 30일, 32대 17로 종교자유법안을 통과시켰고 하원은 4월 1일 69대 44로 통과시켰다. 하원은 지난 2월 19일 표결에서도 80대 39로 이 법안을 가결한 바 있다. 필 브라이언트 주지사는 종교자유에

있어서 매우 강력한 지지자이기에 이 법안이 정식법으로 발효되는 것은 시간문제라 할 수 있다. 이 법안은 목회자나 교회는 물론 기업, 더 나아가 공무원과 소셜워커에게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결혼에 서비스를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는 초강력 법안이다. 반면 연방 법원은 지난달 31일 동성 커플의 자녀 입양을 합법화했다. 미시시피 주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동성 커플의 자녀 입양을 불법화한 마지막 주였다. 그러나 이번 연방 법원의 판결로 인해 미국 전역에서 동성 커플의 자녀 입양이 가능케 됐다. 연방 법원은 동성 커플의 입양을 금지하는 미시시피 주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김준형 기자

### SB1457 법안 통과 위한 기도 필요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선택 2학점으로 수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캘리포니아 상원의원 Mike Morrell(공화당)가 지난 2월에 SB1457(the Parental Choice for Released Time Credit Act)을 도입했는데, 이 법안은 공립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수업시간에 학교 캠퍼스 밖에서 기독교 교육을 포함한 종교 수업을 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9명 회원의 상원위원회에서 청문회와 투표가 있었는데, 상원의원 Richard Pan(민주당)이 투표를 아직 안해 투표 결과가 4-4 동점인 상태이다. 앞으로 그의 마음을 움직일 시간은 약 1~2주밖에 없다. 이 기간

안에 Pan이 상원 위원회에서 찬성하는 투표를 안 하면 캘리포니아 전체 상원이 투표할 기회가 사라진다. 따라서 Pan에게 전화(916-262-2904)하거나 <http://sd06.senate.ca.gov/contact/email>로 이메일, 또는 팩스(916-914-2179)해 SB1457 찬성투표 촉구가 필요하다. 또는 이메일 링크에 들어가 이름, 주소,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후 설명(Comment)란에 아래 내용을 입력해 전송해도 된다. “Dr. Pan, the religious and moral instruction plays a critical role helping young people to develop decision-making skills and become strong leaders for our society. I strongly support SB 1457, and I urge you to vote in favor of SB 1457.” TVNEXT.org참조

### 부활절 연합예배

교계, 지역별 연합예배로 드러  
 지난달 27일 부활주일을 맞아 남가주 교계는 전 지역에서 새벽 5시 30분에서 6시에 사이에 지역별로 모여 거의 동시에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다. 각 교회들로부터 모인 성도들은 총 10여 개 지역에서 각각 부활주일 연합예배를 드렸다. 특히 이 가운데 인랜드, 사우스베이, 오렌지카운티 지역 등에서는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한에 억류 중인 임현수 목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순서를 가졌다. [관련기사 10, 11면에 계속]

**나라정비** 타이어 대리점  
**GOOD YEAR**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턴과 12가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적성검사를 통한 진로 선택의 지름길  
 재능 개발·토크스, 얼바인 Class (Verbal, Visual, Logical, Creative, Physical, Emotional)  
 3-7-21 재능캠프  
 USA Tel: (951) 383-5583  
 Tel: (949) 329-8222  
 Email: shelly.moon65@gmail.com  
 www.Mylivdream.com

개혁신의 신학세미나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직영 개혁장로회 대학 & 신학교 총동문회 주최**  
**신학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동문여러분들의 교회와 가정 위에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말세지말(末世之末)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개혁주의 신학과 교리를 올바로 전수함으로 주님의 피 값으로 사신 교회가 올바른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금번에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직영 개혁장로회 대학 & 신학교 총동문회에서는 본 대학 및 신학교 동문과 남가주 지역 목회자 및 동역자 그리고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신학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총동문회 회장 원사라 교수

- 주 제 : 개혁주의 입장에서 본 전도서 해석과 설교
- 일 시 : 2016년 4월 18일(월) 오전 10시
- 장 소 : 남가주비전교회 (송상현 목사 시무) 412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 준비물 : 성경, 찬송, 필기도구
- 연락처 : T (760)927-5982 (총무 고승경 목사)

[강사소개]  
 한국 총회신학연구원에서 M.Div 과정을 마치고 미국 Fuller 신학교 Th.M (구약전공)을 취득하고 UCLA에서 Ph.D.(고대근동학) 학위를 받았다. 한국 총회신학연구원과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구약학 교수를 역임했고 미국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Calvin Bible College and Seminary 등에서 구약학을 가르쳤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아랍어 교본을 집필했고, 곧 출간될 롯기원문주석, 심계명원문주석, 이사야 53장 주해를 집필했다. 3천년기 사역(Third Millennium Ministries: korean.thirdmill.org)의 구약 강의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직영 개혁장로회 대학 & 신학교 총동문회**  
 KAPC Reformed Presbyterian University & Seminary Alumni Association  
 26998 Silver Lakes Parkway(P.O. Box 1984) Helendale, CA92342  
 Tel : (760)927-5982, Fax (760)245-5511 E-mail : andysungko@gmail.com





3일간의 세미나를 마친 후 강사 이요나 목사와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미주 성경적 상담 자기대면 세미나”

강사 이요나 목사... ‘중독으로부터의 탈출’ 주제로 개최해

제1회 미주 성경적 상담 자기대면 세미나가 지난달 30일~4월 1일까지 남가주빛내리교회(담임 박용덕 목사)에서 이요나 목사(홀리라이프치 유상담학교 교장)를 강사로 열렸다. 이 세미나는 올바른 상담자가 되려면 성경적 자기대면의 원리를 통

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고 성경적 소망 가운데 변화를 경험해야 한다는 전제를 갖고 있다. 강사 이요나 목사는 ‘중독으로부터의 탈출’을 세미나 주제로 삼았다. 성 중독, 우울증, 분노 등 여러 분야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대

면케 하는 여러 가지 강의와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 목사는 갈보리체플 서울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과거에 동성애자였으나 이로부터 탈출해 현재는 동성애자와 탈동성애자들을 돕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문소현 기자

### “제3회 십자가의 길”

비록 1박 2일의 짧은 시간이지만 이민목회에 지친 목회자들에게 진정한 쉼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으로 십자가영성원(공동대표 김재흥 목사, 이명수 목사)에 의해 시작된 ‘십자가의 길’이 지난달 13~14일 3회 째를 맞아 청운교회 비전하우스에서 진행됐다.



제3회 십자가의길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십자가의 길’의 특징은 목회자 자신이 직접 십자가를 재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기 까지,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던 골고다 언덕길의 14처소를 똑같이 재현한 현장에서 목회자 자신이 십자가를 직접 지고 통과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별다른 프로그램없이 찬양으로 시작하여 기도과 은혜 나눔 등의 시간으로 일관했다. 그런데 참석자들은 의외로 더 많은 은혜의 시간을 경험했다고 간증했다.

앞고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십자가의 길’은 지난해 부활절을 기해 처음 시작됐다. 원래는 부활절 즈음에 년 1회 예정이었으나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10월 경 한 차례 더 하게 되면서 매년 2회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문의는 이명수 목사(213-675-8291)에게 하면된다. 이영인 기자

이 과정을 통과하며 목회자들은 현장목회의 십자가 고통은 오히려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고 회개를 통한 영육간의 회복을 맛보게 된다. 이룬이 아닌, 실제 참가한 목회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전해주는 열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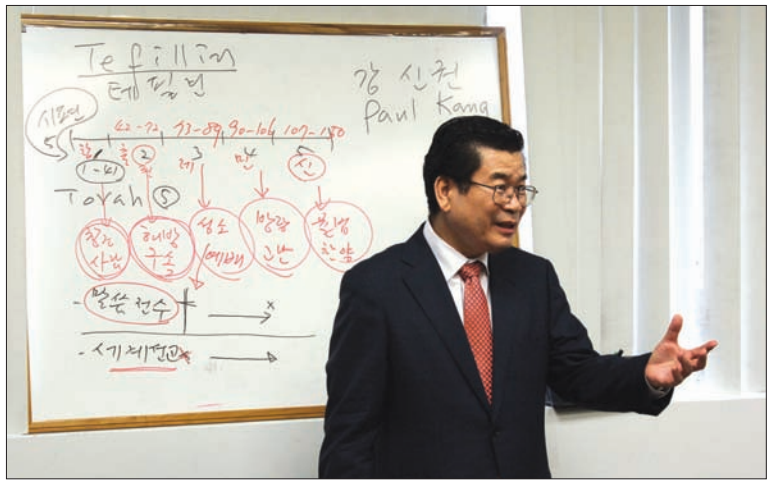
### “노숙자들과 부활의 기쁨과 승리 나눴어요”

부활주일 전후로 남가주 전 지역에서는 이웃을 섬기고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통해 지역 선교에 나서는 행사들이 이어졌다.



창대교회와 사랑나눔선교회가 샌버나디노 지역 노숙자들과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대접했다.

샌버나디노 지역 창대교회와 사랑나눔선교회도 부활주일 하루 전인 26일 토요일 이 지역 노숙자들과 함께 부활절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를 대접했다. 이 교회 담임이자 선교회 대표인 이춘준 목사는 “노숙자들과 부활의 소식을 나누며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승리를 누렸다”고 전했다.



강신권 목사가 시편과 모세오경의 연관성에 대해 열강하고 있다.

### “히브리식 성경해석의 비밀”

미주 테필린 세미나 개최...히브리식 3통 사고로 성경원전 해석

수천 년간 유대인들에게만 전수 되어온 히브리식 성경 해석의 비밀이 남가주 한인 목회자들에게 공개됐다. 종교개혁 5백 주년을 앞두고 남가주 한인교회의 개혁과 갱신을 부르짖는 목회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한 지점에 도달했다.

도 강 목사는 유대인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해석한 특별한 방법을 강의하고 유대인들의 성경적 천재 교육법도 소개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토브성경원전 연구소 주관 제1차 테필린(Teffilin) 세미나가 지난달 28일 기독교일보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 연구소 소장 강신권 목사(세계성경장로교회, 코헨대학교 설립총장)가 강사로 나섰다.

강 목사는 평소 “유대인들은 말씀 전수에는 성공했지만, 세계 선교에는 실패했고, 기독교인들은 세계 선교에는 성공했지만, 말씀 전수에는 실패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만이 알고 있는 말씀해석법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날 강 목사는 자신이 평생 연구한 히브리식 말씀 교육 비법을 공개했다. 강 목사는 제사장 아론의 직계 후손인 게리 코헨 박사와 함께 코헨대학교를 설립하고 히브리식 말씀 전수와 관련된 연구를 해 왔다. 이날

목회자와 신학생, 평신도를 대상으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열린 이 세미나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한편 이 세미나는 강신권 목사의 후원으로 책과 교재가 무료로 제공됐고, 한인기업 비즈포스트가 점심 식사를 후원했다.

### 하늘샘교회...할렐루야한인교회로 다시 개명

LA 동부 월넛에 위치한 할렐루야한인교회가 지난달 25일 교회 현판을 다시 달았다.

도 하다”며 설명했다. 송 목사는 “예전에 할렐루야한인교회가 이루었던 부흥의 불길을 다시 한 번 일으킬 수 있기를 소망하며 성도들과 함께 전도와 선교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978년 한덕수 목사가 개척한 할렐루야한인교회는 2008년 하늘샘교회로 개명했다가 올해 1월 성도사무총회에서 다시 할렐루야한인교회로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하고 이날 현판을 다시 가졌다.

예배는 주일 오전 8시와 11시에 각각 드린다. 영어권은 다문화 목회의 일환으로 중국인교회와 연합해 드린다.

지난 2014년 제 5대 담임으로 부임한 송재호 목사는 “할렐루야한인교회란 이름 속에는 눈물과 땀으로 교회를 세웠던 개척정신이 숨어 있다. 또한 이 지역 대부분의 사람들도 하늘샘교회보다는 할렐루야한인교회란 이름을 더 많이 기억하고 있기

오전 9시 45분에 주일학교를, 오전 11시에는 영어예배를 드린다.

▲주소: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문의: 909-595-3110

▲웹사이트: www.hnsla.org

**SAS 인가컨설팅** 비영리단체, 선교회, 연구소, 종교특례 대학 및 일반대학 설립인가 미 지역 종합서비스

대표 Paul Kim, Ph. D summitus37@gmail.com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 장로·권사 임직감사예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엠마오장로교회 임직 감사예배에 여러분을 초대하오니  
오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권사 임직자 일동

**일시** : 2016년 4월 24일(주일), 오후 4시  
**장소** : 엠마오장로교회 (18435 Valley Blvd., La Puente, CA, 91744)

**장로** 이용구, 이수호  
**권사** 유용희, 구자분, 안양란, 이정숙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

**엠마오장로교회**





제7회 무료이미용강좌가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왼내는 강사 손지연 원장)



장로장립예배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무료로 이미지 배워 선교해요”

남가주사랑의교회 무료이미용 강좌 통해...홈리스사역 등 선교에 적극 활용

미용업 35년 경력의 손지연 집사 (왼내 사진)가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에서 제7회 무료이미용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기간은 10주과정으로 현재 매주 목요일 저녁 남가주 사랑의교회에서 2시간 30분씩 진행되고 있다. 미용에 관심있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하여 쉽게 배울 수 있다. 마네킨 가발 2개와 가위세트를 준비해 기본적인 커트와 A-Line,

Square, Round, Layer 등 짧은 시간 집중적인 실습방법을 직접 경험해 봄으로서 자신감과 기술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강의하고 있다. 이 교회 청년부 전재홍 형제는 작년 3월 시작 무료이미용강좌에서 10회의 강의를 수강한 후, 흑시라도 머리카락을 잘못 자르면 어쩌나 하는 고민을 했었는데, 수업 도중 "머리카락은 또 자라납니다. 도전하세요"라는 손 원장의 한마디 말에 용기를 얻

어 홈리스사역에 참가하게 됐고, 지금은 두 곳에서 이발사로 섬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 원장은 평생 숙련해 온 기술을 통해 미약하나마 이웃 선교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이 오히려 감사한 일이라고 겸손해 했다. 손 원장은 현재 OC세리토스 소재 소피아헤어 사용을 운영하고 있다. ▲문의: 손지연 원장(562-402-7300), 전재홍 형제(714-337-0714) 이영인 기자

###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되라”

세계선교교회...장로장립예배 드리고 2명의 직분자 세움

LA세계선교교회(담임 장태원 목사)가 4일 장로장립감사예배를 드리고 2명의 직분자를 세웠다. 장태원 목사는 "작년 9월에 2대 담임목사로 부임한 이후 첫 임직자를 세운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며 "교회 사명의 본질인 지역사회 복음화와 선교에 더욱 더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장 목사는 또 "작지만 교회 재정의 30퍼센트를 선교비로 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하다"면서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충성과 헌신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날 축사를 전한 한기형 감독(나성동산교회 담임)은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아는 것이 첫째"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워야 함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목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담임목사와 함께 연합함으로 내 몸을 돌보듯 교회의 지체들을 돌보고 알아가라. 그리하여 교회의 비전인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께 기쁨되고 영광되는

교회가 되라"고 당부했다. 김영구 목사는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라.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권면했다. 이날 임직예배는 1부 감사예배와 2부 장로임직예식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장태원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이 장로장립감사예배는 윤종명 목사가 기도, Angel's Church 담임 장정국 목사가 설교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진 임직식에서는 장태원 목사가 임직자를 소개한 후 장로와 교인들에게 서약을 받고, 안수위원들의 안수기도와 함께 장태원 목사가 장로 임직을 선포했다. 끝으로 유의근 목사(민음교회 담임)의 축도로 모든 임직예배를 은혜롭게 마쳤다. 한편 이날 임직예배에서 교회는 각 임직자들에게 장로 가운을 선물하고 임직자들의 헌금을 전액 선교비로 사용한다고 밝혀 선교지향 교회의 면모를 보여줬다. 이인규 기자

### 남침례회남가주한인교회협 4월 지방회 개최 처치 플랜팅 세미나도 가져

남침례회남가주한인교회협의회 4월 지방회가 4일 오전 LA 동부지역 월넛에 위치한 할렐루야한인교회(담임 송재호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지방회에는 남가주 지역에 위치한 남침례회 소속 목회자들과 사모들이 참석해 서로 교제하며 유익한 정보를 교환했다. 찬양과 기도로 시작된 이날 모임에서는 특별히 목회에 필요한 교회 개척, 교회주정부등록, 세금보고,



남침례회남가주한인교회협의회 4월 지방회가 열리고 있다.

교단의 지원과 신청에 관한 내용 및 기타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도 함께 진행됐다. 개척한 지 오래된 교회들

에게도 지금의 규정들을 재확인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제공했다.

### 뮤지컬 이터널 라이프 The Holy Spirit 4월 8~10일 3일간 은혜한인교회 본당에서

은혜한인교회가 주최하고 창조문화선교단이 주관하는 뮤지컬 이터널 라이프2016이 오는 8일(금) 오



후 7시 30분, 9일(토) 오후 7시, 10일(주일) 오후 6시 30분 3회에 걸쳐 열린다. ▲문의: 714-446-6200

▲티켓: 5불 ▲장소: 은혜한인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자,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Advertisement for Hyundai car sales. Text: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and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Includes Hyundai logo and contact info: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Advertisement for Saevit Acupuncture clinic. Text: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213-389-8275 520 S. Virgil Ave., #305 Los Angeles, CA 90020'. Services listed: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Includes contact info and insurance details.

Church Every Day advertisement for the 17th Anniversary Ordination Service. Text: 'church everyday Senior Pastor Hong Ju Choi 에브리데이 교회 창립 17주년 임직예배 2016년 4월 10일 (주) 4pm, 본당'. Lists names of elders, deacons, and members. Includes the quote: 'BECAUSE HE BENDS DOWN TO LISTEN I WILL PRAY AS LONG AS I HAVE BREATH! PSALM 116:2'. Website: www.churcheveryday.org





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 “복미 복음화에 더욱 헌신”

### 순복음세계선교회 제41차 북미총회 개최...회장 양승호 목사 연임, 동성에 방지 방안 등 논의

제41차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 및 축복성회가 지난달 29일~4월 1일까지 애틀랜타에서 열렸다. 선교국장 엄태욱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의 설교로 1부 예배, 순복음북미총회장 양승호 목사의 사회로 2부 총회가 진행됐다. 총회에서는 감사 및 재정 보고에 이어 2016년 예산안 발표가 있었다. 또한 헌법 개정 및 임원 선출이 이어졌다. 총회장에는 양승호 목사가 연임됐다. 그리고 전임총무제가 도입돼 김수익 목사가 임명됐다. 이와 함께 부총회장에는 이정환·안현·마중만 목사가 선출됐다. 양 총회장은 “순복음의 오종복음

과 삼중축복 메시지를 통해 북미 복음화에 더욱 헌신하겠다”며 “재단법인 설립 등을 통해 순복음북미총회 산하 교회와 목회자의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순복음선교회 이사장 이영훈 목사는 이번 총회에 참석해 “북미총회가 강력한 성령운동을 통해서 미국을 회복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북미 내 ‘동성애 법 통과’에 따른 동성애 방지를 위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 “교회가 세속된 문화를 견제하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자”고 결의했다.

또 총회 산하 신학교로 미드노스 신학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하는 것과 관련, 지난달 29일 이사회가 소집되기도 했다. 이영훈 목사를 비롯한 이사 10명은 일리노이주 주정부 교육국(IBHE) 승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살피는 한편, 온·오프라인 교육을 통한 지원 등을 논의했다. 미드노스신학대학원대학교는 일리노이주에 있는 순복음시카고교회에 세워질 예정이다. 한편 현재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에는 12개 지방회 내에 총회원 331명, 교회 및 기관 187곳이 속해 있다.

김진영 기자



한국교회봉사단 총회 후 기념촬영이 진행되고 있다.

# “선교 리더 양성과 선교 확장 위해 힘쓸 것”

### 33차CRC한인교협 총회 개최...회장 박성재 목사 선출

북미주개척교회(CRC) 한인교회협의회는 4일부터 열린 제33차 정기총회에서 박성재 목사(타코마 잠빛교회 담임)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고 복음 전파와 제자 훈련, 선교 리더 양성에 힘쓰는 교단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또 부회장에 김동일 목사(LA생명찬교회 담임), 총무에 김문배 목사(미시간그랜드레이크한인은혜교회 담임)를 각각 선출했다.

박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개혁 교회의 본질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며 한인교회의 선교 확장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했다. CRC 한인교회협의회 측은 “매년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개 교회에 다양한 선교 후원을 하고 있는 CRC 교단에 가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회를 건강히 세워나가고, 선교 확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단으로 나

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회예배에서는 전임 회장 임바울 목사가 ‘그리스도의 종’(고전 4:1-2) 주제 설교를 통해 “말겨진 사역지에서 충성과 헌신으로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CRC 교단 소속 신학대인 칼빈대학교의 러셀 블럼 부총장이 참석해 대학이 지향하는 교육 목표와 방향을 소개했다.

김브라이언 기자

# 오네시모의 독백

김영언 저



## 5. 마가의 빛은

사랑하는 친구 마가가 예수의 생애를 집대성한 책의 초안을 검토해달라고 보내왔다. 그리스어로 적힌 다소 투박한 글과 달리 예루살렘의 부잣집 아들 마가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타고난 성품이 유약하다. 그의 어머니집 다락방에서 예수사후 50일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방언이 터지고 이적을 행할 때에도 그는 조용히 관찰하는 편이었다. 수완 좋았던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고자 바울의 첫 번째 선교여행을 수행한 마가는 그러나 선교지에서 위협을 느껴 중간에 무단이탈하였고, 바울의 심한 반대로 결국 두번째 선교여행에는 삼촌 바나바를 따라 별도로 움직이게 되었다.

를 바로 잡을 길이 없어져 간다. 심지어 예수의 고향 가버나움 쪽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파피루스에는 예수가 어린 시절 저 멀리 인도에까지 가서 살았다는 예수가 살아생전 한번도 언급하지 않은 이상한 이야기까지 적혀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다보니 소아시아와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에서 예수의 이야기를 더 이상 구전에만 의지하지 말고 글로 남겨달라는 요청이 점점 들어오고 있었다. 이 일에 적극적인 친구 마가가 책임을 맡았다.

바울은 자신의 은인 바나바와 크게 다툰 이때 일을 후회하는 말을 내게도 종종 하였는데 그 원인을 제공한 마가의 연약한 심정에는 오죽했으랴. 마가 역시 이 일을 두고두고 마음에 담아 지내던 중 로마감옥에 갇힌 바울을 찾아와 큰 도움을 주었고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되었다. 훗날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서 마가를 데려와 보게 해 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마가를 사랑하였다. 마가는 바울만이 아니라 베드로와도 깊은 인연이 있다. 베드로의 비서이자 통역자로 노년의 베드로를 동행하면서 수제자가 기억하는 예수의 행적을 가장 잘 알게 되었다.

예수의 공생애가 이렇게 책으로 엮이어나 감명깊게 읽던 중 예수가 체포되던 날을 적은 내용에 마가가 남긴 뜻밖의 구절에 잠깐 무슨 소리가 하다가 박장대소를 했다. (저자주 - 마가복음 14장 50-52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 흩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베 흩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언뜻 뜬금없어 보이는 이 짧은 에피소드속 벗은 몸으로 도망간 청년이 누구였을까. 마가 본인이었는지. 이 친구바라. 그러니까 자기는 베드로도 도망가는 판에 그래도 끝까지 예수 옆을 지키다 잡힐뻔 했었다는 자랑을 굳이 넣고 싶었구나. 베드로와 바울의 그늘속에 평생을 살았으나 예수의 마지막에 함께 했다는 마가의 자부심과 그 와중에 벗은 몸으로 도망간 그의 유약함이 교차하며 떠올라 자꾸만 미소가 지어진다. (계속)

예수가 이 세상을 떠난지 30년이 넘어가면서 예수에 대한 기억에 혼선이 생겨나고 있다. 직계 제자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오류

## 하와이 목회자부부토탈리더십포럼

지금은 준비된 목회자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다. JAMA가 이 포럼을 개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시: 4월 18일(월) 오전 10시부터 20일(수) 오후 3시까지  
-문의: 323-933-4055

-강사: 김춘근 교수(JAMA설립자) 배성호 박사 존 최(JAMA 이사)  
-장소: 아이에아한인연합감리교회 (99-550 Kulawea St., Aiea, HI 96701)  
-웹사이트: www.jamaprayers.com

##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준연,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Welcome to a better world



**Green M. Wild** IMAGE SYSTEMS  
Sales Representative: Eric Kim  
GreenMWild@Gmail.com  
TEL : 213 705 7778

모든 사용자를 만족시키는 업무 효율의 혁신

**KONICA MINOLTA bizhub**

최첨단 고해상도 칼라 디지털 복합기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최고의 인쇄 품질과 획기적인 비용절감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Used printers trade in & purchasing

**bizhub C554e / C454e / C364e / C284e / C224e**

C554e Colour B&W 55/55 ppm	C454e Colour B&W 45/45 ppm	C364e Colour B&W 36/36 ppm	C284e Colour B&W 28/28 ppm	C224e Colour B&W 22/22 ppm	Dual Scan ADF 160 opm Duplex	Dual Scan ADF 80 opm Simplex	USB Print	Colour Internet Fax	Mobile Support
-------------------------------------	-------------------------------------	-------------------------------------	-------------------------------------	-------------------------------------	--	--	--------------	---------------------------	-------------------

Simitri with Minolta bizhub Marketplace



# 가정천국 영적 공동체

서편 128:1-6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신앙 가정의 가장으로 삼으시고 그 안에 사랑과 함께 신앙 가정을 꾸리게 하셨습니다. 온 가족이 회개하고 말씀에 붙잡혀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생각 하는 것이 저절로 같아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대로 성령의 지시하심이 있고 감동이 있으면 그대로 믿는 것이 제일 잘 믿는 믿음입니다.

1절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敬(공경할 경) 畏(두려워 할 외)자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면서 진심으로 섬기고파 하는 것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즉 진리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무지가 하나님을 우습게 대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신앙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은 하지만 실천하는 믿음이 없다면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가장 두려운 분으로 알고 지극 정성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에서 도는 道(길도) 즉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진리의 말씀대로 복종하고 실천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인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최고의 복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은 평탄하고 형통하며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며 정성으로 섬기고픈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기 바쁘게 믿음으로 실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는 말씀은 이중적 복된 개념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네 몫이 되게 하시는 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27편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꼭두새벽부터 일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헛되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고는 네가 했지만,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네 수고한 결과를 가로채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쓸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먹지도 입지도 마시지도 쓰지도 않고 쌓아놓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넘기신다는 것입니다. 수고는 죄인이 하고 그 죄인이 수고해서 얻어진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넘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 네 하는 일이 형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돌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도다”

그 아내가 어떤 사람이냐, 잘 익은 포도같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포도원이라고 말씀했고,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 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했고, 하나님을 농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실을 맺지 않으면 잘라서 불에 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 믿음이 너무나 순수하고 온전하다는 말씀입니다. 포도나무 열매 포도송이가 탐스럽게 잘 영글었다고 하는 것은 아내가 자기 믿음만 하나님 앞에 흠도 티도 주름 잡힘도 없이 아주 온전한 믿음으로 잘 자라고 영글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속에서 태어난 어린 자식들까지 성령이 충만한 영적 자녀들로 잘 양육 했다는 말씀입니다. 끼니 때 마다 밥상에 둘러 앉아 밥을 먹을 때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가정을 이끌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신앙 가장으로서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지극 정성으로 더 잘 섬기고픈 소원 그런 가정을 모신 대다가 그 가장이 그 가정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장과 가정에 함께 해 주심으로 그가 가는 길이 평탄하고, 하는 일은 형통하도록 해서 네가 수고한대로 먹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분복을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포도송이처럼 아주 알차고 탐스럽게 잘 영글은 결실한 그런 모습이고 자녀들도 어린 감람나무처럼 순수하게 자기 의지나 주장이 없이 완전히 성령에 점령되고 충만한 모습으로 표현하며 어린 감람나무로 표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진리 정통한 믿음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지극 정성으로 섬기는 신앙 공동체, 가정 천국을 이끌어 가고 있고, 그런 남편과 함께 사는 아내는 그 진리 정통한 믿

음을 통하여 영적으로 탐스럽게 결실해 잘 영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내외가 믿음이 아주 모범적이니까 그 자녀들의 신앙도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어린 감람나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가정이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지극 정성으로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전적인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받고, 믿습니다로 실천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붙여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찌로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이루고 있는 산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을 다윗을 통하여 세우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성이라고 하다가 하나님이 영감적 지시로 예루살렘이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인 곳이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곳이라. 영적으로는 신약시대의 성령이 충만하고 진리가 정통한 교회를 시온 또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진리 정통한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에 속한 신도들이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거듭나고 그 하나님을 지극 정성으로 섬기고픈 신앙심에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바쁘게 아멘하고 믿습니다로 복종하고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교육과 훈련을 바로 그가 속한 진리 정통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통하여 그 교회 드나들면서 영적 지도를 목사로부터 제대로 받았을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이 바로 서면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지극 정성으로 섬기고파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 제일주의로 가정을 이끌어 가며, 그 가장의 신앙이 신앙 가장으로서 아내와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면서 아내는 잘 영글은 포도송이 같고, 어린 자식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어린 감람나무 같아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 가족이 영적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런 곳이 가정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천국을 이루어 주는 곳이 어디냐. 그들이 속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가 없는 곳에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절대로 천국을 물려줄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이하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즉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합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잘 영글러 진리와 성령으로 탐스럽게 결실한 포도송이처럼 되어야 하고,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처럼 성령이 충만한 영적 소망을 가진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성령에 이끌리며 그 목자의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새 출발이 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영적인 소망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시카고 기독교방송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미국 신문 설교		AM1310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리인 칼럼 설교	화요일 오후 7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금요일 오후 2시30분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Fullerton Chapel**  
입 · 당 · 감 · 사 · 예 · 배  
4월 10일(주일) 4:30pm  
플러튼채플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강사: 김인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학원 총장)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에배 1부 8:45am 2부 11:45am  
금요영성집회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am / 토 6am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el: (818) 363-5887

**엘에이채플 LA Chapel**

주일에배 1부 8:45am 2부 10:30am  
목요영성집회 7:15pm  
새벽예배 월-금 5:30am  
3460 Wilshire Blvd. Ste 700, Los Angeles, CA 90010 / Tel: (213) 232-3163

**플러튼채플 Fullerton Chapel**

주일에배 1부 9:15am 2부 11:45am  
수요영성집회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am / 토 6am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el: (657) 217-5558



바누엘교회

## 바누엘교회 중고등부와 대학부 교역자를 모십니다

■ **사역부서**  
중고등부 1명, 대학부 1명 (각각 1분씩)

■ **자 격**  
정규 신학교 졸업생이거나 졸업하신 분  
담당 부서에 경험이 있는 분  
학생들을 좋아하시는 분  
(가급적, 중고등부 사역자는 25-30세 정도의 미혼, 대학부는 30세 전후의 기혼자)


■ **연락처**  
바누엘교회 담임목사 이동배  
T(818)823-5464, (213)353-4688

### 바누엘교회

190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57

## 토브 성경 연구

### Tov Bible Study



강신권 목사

- 히브리식 사고 : 3통 사고
- 히브리식 체현 : 5특체현으로 성경 원전 해석
- 현재 : 요한계시록 특강(매주 수요일 7:30pm)
- 강사 : 강신권 목사
- 장소 : WBPC 세계성경장로교회

**Tel(562)761-5242**  
**Tel(213)739-0403**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픽업가능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Players Tour  
12~14살, 18홀, 1~2명 모집
- 피아노반주 가능한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D.D.)  
현 '제일좋은 예닮교회' 담임목사

• 김인수 교수의 한국교회사

### 연합운동의 결실(I)



김인수 교수  
전 미주장로회신학대 총장

초창기 한국에 들어와 선교하던 선교사들은 한국에 하나의 개신교회 설립을 위해 무척 애를 썼지만, 이 일은 여러 이유로 결국 실패로 끝났다.

인도나 중국에서는 이 일이 성사됐으나 한국에서 실패한 것은 여간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비록 교파나 파송한 교회는 달라도 협력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노력을 경주했다.

이런 노력은 구체적 결과를 가져왔다.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는 처음부터 한국에서 선교하는 선교부 간의 협력과 일치를 추구해 나갈 생각을 가졌다.

특히 같은 신조를 고백하고, 정치체제를 갖는 장로회 선교부 간의 협력문제를 심도 있게 구상했다. 그러던 중 미국 북장로교회 다음으로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 선교사들이 내한했다.

1889년 데이비스(J. Henry Davies)가 그의 누이동생과 함께 내한했을 때, 언더우드는 우선 이들과 함께 연합전선을 구축할 생각을 했다. 그는 '미국과 빅토리아교회연합선교회'(The United Council of Missions of the American and Victorian Churches)를 형성하자고 제안했고, 데이비스는 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연합 선교회 의장은 북장로교회의 선교사 헤론(J.W.Heron, M.D.)이 맡았고, 빅토리아 장로교회 데이비스가 서기, 그리고 언더우드, 알렌, 기포드(E.Gifford)가 창립 멤버가 됐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협의회는 데이비스가 한국에 온 지 1년 만인 1890년 천연두에 걸려 부산에서 세상을 떠나자 그 활동이 중단되고 말았다.

1892년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들이 입국하면서 장로회 협의회가 다시 태동됐다.

여기서 잠시 미국 북장로교회와 남장로교회, 그리고 북감리교회와 남감리교회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본래 미국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는 하나였다.

그러나 노예제도 문제로 남과 북이 대립하면서 1861년 남북전쟁(The Civil War)이 발발했다. 이 전쟁을 전후하여 북쪽 장로교회는 북장로교회, 남쪽 장로교회는 남장로교회, 북쪽 감리교회는 북감리교회, 남쪽 감리교회는 남감리교회가 됐다.

한국에는 남, 북 장로교회와 남, 북 감리교회가 동시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각각 선교했다.

1893년 1월 서울에서 북장로회

와 남장로회교회는 '장로회 정치권을 갖는 선교공의회'(The Council of Missions Holding the Presbyterian Form of Government)를 조직했다. 한국에 나와 사역하던 장로교 선교사 전원이 이 협의회에 참여했다.

이 공의회의 목적은 후에 한국에서 개혁교회의 신앙과 장로교회의 정치 형태를 갖는 하나의 교회를 만드는데 있었다. 1893년 1월 개최한 공의회 제1차 회의에서 남장로회교회는 아직 선교부가 들어가지 않은 충청, 전라 양도를 선교 구역으로 정했다.

이런 현지 결정에 따라 1893년 3월 미 본국 남, 북 장로교 선교부 대표들이 뉴욕에서 모였다. 두 선교부는 한국 선교 사역에 긴밀히 협조하기로 하고, 한국에 단일 장로교회 설립을 두 장로회 총회가 승인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초창기에는 이 공의회가 소속 선교회에 행정적 치리권을 갖는 것은 아니고 권고만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한국 장로교회에 치리할 수 있는 기구가 아직 없었던 때라 1907년 독립노회가 창립될 때까지 행정을 관장하는 상회 구실을 했다.

이 협의회는 한국 선교 수행에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선교지 분할문제를 협의했다. 1893년 1월에 모인 제1차 회의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후에 한국에서 선교를 시작한 캐나다 장로교회 선교회와 호주 장로교회 선교회가 이 협의회에 가담함으로써 한국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네 장로회가 이 공의회를 통하여 연합하게 됐다.

호주 장로교회는 본래 북장로교회 거점을 확보하고 있던 부산 지역에 선교 거점을 동시에 갖고 있었는데, 이 협의회를 통해 그 지역을 분할하기로 했다.

부산 지역에 두 개 선교 지역을 공동 선교구로 합의했다. 경상도 남부는 호주 선교부에 이양하고, 낙동강 이북은 북장로교 선교부가 맡기로 했다.

1905년 5월, 한국에서 선교하던

네 개 장로교회(미국 남·북 장로회, 캐나다 장로회, 호주 장로회)와 두 개 감리교회(미국 남·북 감리회)가 연합하여 '개신교복음주의 선교협의회'를 구성했다. 이 협의회 목적은 "선교 사업에 협력하고, 궁극적으로 한국에 복음주의에 입각한 하나의 토착교회를 세운다."는 것이었다.

이 협의회에 모든 복음주의 선교회가 회원으로 참가하도록 했다. 따라서 이 협의회는 먼저 선교부 간에 선교지 분할의 문제를 다루고, 선교지 교회와의 관계문제, 연합 사업으로 찬송가, 그리고 선교사 잡지 「코리아 미션 필드」(The Korea Mission Field)의 발간, 그리고 주일학교 공과, 기도 달력 발행 등을 협의했다.

기도 달력에는 교파 이름을 모두 제거하고 단순히 '예수교회'(Jesus Church)라 쓰기로 했다.

또한 서울과 평양에 있는 각 교파가 경영하던 학교들도 모두 통합하여 연합학교로 운영키로 결의했다. 이 계획에 따라 북감리회와 북장로교회가 경영하던 두 도시의 학교들이 통합됐다.

평양에 있던 두 곳(북감, 북장)의 소년학교와, 서울에 있던 세 곳(북감, 남감, 북장) 학교가 모두 통합됐다. 평양에 있던 두 곳 소년학교도 얼마 후에 통합됐다.

이 협의회는 신문의 연합 발행도 실천에 옮겼다.

또한 1902년에 잡지를 연합하여 발간하기 위한 위원회가 조직되어 1905년에 이르러 「크리스찬 뉴스」(The Christian News)가 감리교회의 신문과 병합됐다. 그때부터 장로교와 감리교신학교의 학술적인 잡지 외에 한국 내의 모든 잡지는 연합으로 발간됐다.

이 협의회가 수행한 일 가운데 가장 괄목할 만한 것은 선교지 분할문제였다.

1908년에 이 문제에 대해 한 번 협의가 이루어졌고, 다음에 1909년에 이르러 여러 선교부가 이 문제에 대한 결의안에 서명했다.

전국을 여섯 선교회(북장, 남장, 호주장, 캐나다장, 북감, 그리고 남감)가 각각 일정 지역을 분할하여 선교한다는 내용이다.

소 종파들도 이 계획에 참여하여 같이 협조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선교 영역에 제한을 두고 싶지 않다고 거절하였으므로 그들까지 끌어들이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들 대교회들의 지역 분할은 오늘날까지 그 근본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지속되어 내려오고 있다.

### 내가 왜 (갱)형들을 사랑하는지 알아요?



정기정 목사  
샘물교회

갱과 연관되어 수감된 한 청년을 방문하고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있다.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그는 '형제'들에 대한 자랑과 그들을 향한 충성심을 내비쳤다.

"내가 왜 형들을 사랑하는지 알아요? 그들은 내가 외로울 때 함께 있어줬어요. 내가 왜 그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지 알아요?(실제로 그는 상대편에게 총맞은 상처를 영광스럽게 생각했다) 그들은 나를 대신해서 총을 맞아줬어요. 내가 왜 형들을 자랑스러워 하는지 알아요? 형들은 나에게 돈버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형님들, 나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허탈한 마음으로 장소를 떠나며 많은 생각이 들었다. "아... 부모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의 빈 마음을 더 먼저 점령했다라면 이 아이가 이곳까지 오지는 않았을텐데..."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큰 집이 아니다. 고기 밥상도 아니다. 우리 세대까지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랑을 원하고 있다. 그 표현을 원하고 있다. 그들은 부모님들과 따뜻하고 오붓한 시간을 간절히 원하지만 오늘도 여전히 큰 집에서 외로이 다식인 밥을 혼자 먹고 있다. 그들은 사랑한다는 말 단 한마디, "오늘은 좀 어땠니?"라는 관심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고민이 해결되지 않아도 좋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귀 기울여 줄 그 누군가를 원하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채워지지 않는 그들의 마음을 세상이 먼저 점령해 버리고 말았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예수

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일이다. 예수님의 사랑 회복, 그 사랑을 향해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사역의 제일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 사랑에서 떨어지는 자가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요한계시록에서 주시는 경교가 무엇인가? "네 첫 사랑을 회복하라"이다.

그래서 부활 후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섬김, 구운 떡과 생선은 큰 비밀이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질문은 더할 수 없이 적절하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외로울 때 함께 해줬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세상과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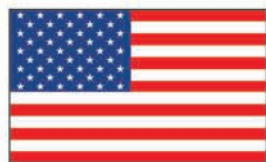
이것이 주어가 뒤바뀐 고백을 깨뜨리고 퍼져 나가야 할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 기독교청소년 고국방문 체험캠프

7.12. - 7.23. (11박 12일)



**누구나 고국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국은 대한민국입니다.**

민족의 뿌리를 찾아주는 것은 이민자 부모의 또 하나의 책무입니다.  
무분별한 고국방문, 때로는 안 간만 못합니다.  
글로벌선진학교와 함께하는 캠프는 고국과 영성을 가슴에 심어줍니다.

- 신청대상 중·고등학생
- 기간 2016년 7월 12일 - 23일까지 (11박12일)
- 참가비 **미화\$800.00** (항공료별도)
- 장소 **글로벌선진학교 음성.문경 캠퍼스**
- 신청문의 글로벌선교회 미주본부  
**714-742-2674 / 213-675-6493**
- 홈페이지 [www.gemgem.org](http://www.gemgem.org)
- 주최 사단 GLOBAL EDUCATION MISSION  
법인 글로벌교육선교회 / 미주성시화 운동본부
- 주관 GLOBAL VISION CHRISTIAN SCHOOL  
글로벌선진학교

- 명소탐방 서울투어/독립기념관/민속촌/  
안동하회마을/문경새재
- 영성캠프 글로벌선진학교 채플/  
이중 언어최고의 영성강사/  
전문 영어찬양팀
- 친선캠프 글로벌선진학교 또래학생들과  
한국어 배우고 친구만들기/  
한국 예절 배우기

## 장학생 선발

Scholarship  
Student  
Selection

선교사 자녀(M.K), 목회자 자녀(P.K), 저소득 자녀(년 50,000달러 미만)들을 대상으로 GVCS 미국 펜실베니아 캠퍼스에서 공부할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문의를 기다립니다.  
**문의: 717-830-9356 (Joshua Kang 교감)**

GVCS Pennsylvania Campus is currently receiving applications for scholarship from children of pastors, missionaries, and low income (under \$50,000/yr) families. Please contact Vice Principal Joshua Kang for more information.  
717-830-9356, [joshua@gemgem.org](mailto:joshua@gemgem.org).

'우리는 글로벌선진학교 GVCS를 통하여 **다음세대 인재를 육성합니다**'





총신대 동아리 'Kadosh'가 개최한 '제1회 총신대 동성애 에이즈 예방콘서트'에서 패널들이 대화하고 있다.



오픈도어선교회 '2016북한선교학교'가 4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첫 강연을 시작했다.

### “동성애와 전쟁 중인 한국 대학가”

동성애 옹호자들, 총신대 동아리 행사까지 방해...서울대 예배도 침해

몇 년 전부터 '동성애 쿼터페레이드' 등으로 '동성애'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한 가운데, 대학 캠퍼스가 이 문제 '접전'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표적인 기독교 보수 사학 총신대에서 '동성애 에이즈 예방콘서트'를 개최하려 하자 동성애 옹호자들이 몰려와 시위를 벌이는데, 탈탈동성애 강사로 잘 알려진 염안

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 목사)이 한국 최고 대학이라는 서울대에서 예배 메시지를 전하려 하자 레즈비언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동성애 옹호자들이 현장에서 반대 피켓시위를 벌이는 등 갈등이 일어났다. 이날 패널로 참가한 염안섭 원장은 토크콘서트를 통해 "동성애 옹호자들이 소위 '인권'을 말하는데, '무

조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장하다 안 되면 '인권침해'라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계 관심과 우려를 샀던 총신대 동성애 옹호 모임 '강종강종' 운영자에 대해 학교 측은 "이미 한참 전에 졸업한 인물"이라며 "현재 학내에 동성애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수민 기자

### “생명력 상실한 주체사상”

오픈도어선교회... 2016북한선교학교 시작

오픈도어선교회 '2016북한선교학교'가 4일 출발했다.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개강예배와 함께 시작된 이번 북한선교학교는 "북한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1학기가 진행된다. 특별히 첫날 강연은 송원근 교수(Acts 북한선교대학원)가 "북한의 주체사상과 기독교"란 주제로 전해 관심을 모았다. 송원근 교수는 "북한을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북한의 정치사상을 이해해야 하는데, 북한은 형식상 다당체제로 조선로동당, 천도교 정우당, 조산사회민주당이 현존한다"면서 "기독교인이 중심 된 조선사회민주당은 로동당의 우당에 불과하며, 그 정치적 영향력이 전혀 없다"고 했다.



송원근 교수 Acts북한선교대학원

이 그만큼 적어져 북한의 젊은이들에게서 창조적 지혜를 얻지 못하게 했다"고 이야기 했다. 또 그는 주체사상이 "그 생명력이 상실된, 무의미한 사상"이라 지적하고, "주체사상의 철학적 기반을 만든 황장엽이 탈북해 남한에 온 순간부터 이미 무너진 사상"이라 했다.

때문에 송 교수는 기독교인들이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뛰어넘는 '통일영성'으로 무장하고, 남북한 체제 이데올로기의 차이와 정치사상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대표적인 본으로 송원원 목사를 지목한 그는, "통일영성은 십자가의 화해와 용서, 부활의 치유와 회복을 통해 이뤄지는 복음의 역사 안에서 이뤄진다"면서 "6.25전쟁을 통해 형성된 민족적 트라우마와 체형적인 반공주의 적대감은 죄책의 고백과 용서, 간구와 화해의 실천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북한 체제 내 기독교인들이 노동당 우당을 세운 이유는 북한 내 종교적 상황 때문이다. 북한의 정치사상인 주체사상이 생성되는 과정 중 주체통치기에 해당되는 1955~1967년 기독교가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는데, 이때 체제 내 기독교 지도자들이 조선로동당의 정치사상을 적극 지지하는 우당을 통해 자신들의 입지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송 교수는 이들이 주체사상을 북한주민들에게 사상화시켜 가는데 있어서 기독교적 교리와 성경적 표현들을 주체사상에 적용, 수렴을 절대화하거나 우상화하는데 도구화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송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북한 체제 내 기독교인들이 노동당 우당을 세운 이유는 북한 내 종교적 상황 때문이다. 북한의 정치사상인 주체사상이 생성되는 과정 중 주체통치기에 해당되는 1955~1967년 기독교가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는데, 이때 체제 내 기독교 지도자들이 조선로동당의 정치사상을 적극 지지하는 우당을 통해 자신들의 입지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송 교수는 이들이 주체사상을 북한주민들에게 사상화시켜 가는데 있어서 기독교적 교리와 성경적 표현들을 주체사상에 적용, 수렴을 절대화하거나 우상화하는데 도구화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송 교수는 "김일성 우상화와 북한 주민 통제를 위한 수령 독재사상을 학습한 결과, 김일성 일가가 대를 이어 통치하는 세습독재가 가능하게 됐다"고 지적하고, "이런 독재에 대한 우상화는 청소년들의 자주의식을 마비시키고, 노예화하는 수단이 될 뿐 아니라, 우상화 과목의 비중이 33.3%로 매우 높다보니 학생들의 창조적 지혜를 키우기 위한 학습시간

이 그만큼 적어져 북한의 젊은이들에게서 창조적 지혜를 얻지 못하게 했다"고 이야기 했다. 또 그는 주체사상이 "그 생명력이 상실된, 무의미한 사상"이라 지적하고, "주체사상의 철학적 기반을 만든 황장엽이 탈북해 남한에 온 순간부터 이미 무너진 사상"이라 했다.

때문에 송 교수는 기독교인들이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뛰어넘는 '통일영성'으로 무장하고, 남북한 체제 이데올로기의 차이와 정치사상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대표적인 본으로 송원원 목사를 지목한 그는, "통일영성은 십자가의 화해와 용서, 부활의 치유와 회복을 통해 이뤄지는 복음의 역사 안에서 이뤄진다"면서 "6.25전쟁을 통해 형성된 민족적 트라우마와 체형적인 반공주의 적대감은 죄책의 고백과 용서, 간구와 화해의 실천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 송 교수는 "동족 구원을 위해 먼저 북한을 절절히 가슴에 품어야 한다"고 말하고, "지금 북한 땅은 세계인이 기피하는 땅이요 북한 주민들은 강도 만난 자"라며 "기독교인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교회는 목회현장에서 통일목회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동족을 사랑하는 열정에 사로잡혀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송 교수는 "동족 구원을 위해 먼저 북한을 절절히 가슴에 품어야 한다"고 말하고, "지금 북한 땅은 세계인이 기피하는 땅이요 북한 주민들은 강도 만난 자"라며 "기독교인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교회는 목회현장에서 통일목회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동족을 사랑하는 열정에 사로잡혀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 “국회 입성해 잘못된 정책 따지고 좋은 법안 만들어야”

교계 지도자들... 동성애·이슬람 저지 위해 기독교자유당에 힘 실어줘

4.13총선에서 '기호 5번' 기독교자유당의 국회 입성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동성애 합법화 반대와 이슬람 확산 저지에 뜻을 모으고, 오는 4.13총선에서 이 같은 바람을 실현해 줄 기독교 정당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왼쪽부터 순서대로) 이영훈·조일래 대표회장, 손영구 기독교자유당 대표, 이태희 목사, 장경동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과 한국교회연합(한교연) 조일래 대표회장, 윤석전 목사(연세중앙교회), 장경동 목사(대전중문교회), 김승규 장로(범무법인 로고스 삼일교문) 등은 5일 아침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기독교 정당과 이들의 국회 진출이 필요함을 재확인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왼쪽부터 순서대로) 이영훈·조일래 대표회장, 손영구 기독교자유당 대표, 이태희 목사, 장경동 목사. 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고 이 나라에도 선한 영향력을 더욱 크게 끼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승규 장로는 "기도만 해서선 잘 못된 법과 정책을 막아낼 수 없다. 국회에 들어가 잘못된 정책을 따지고 좋은 법안을 만들어야 좋은 국가를 세울 수 있다"며 "한국교회가 여기에 힘을 합쳐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의 진리와 가치를 가지고 이 나라와 교회를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경동 목사 역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기독교자유당에 대한 반대

가 예전처럼 많지 않다"며 "불의를 보며 침묵하는 것은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기독교자유당은 동성애와 이슬람 때문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통일과 민족복을 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동성애·이슬람·차별금지법 안 저지 △한국교회는 이번 4.13총선을 제2의 3.1운동으로 선포 △8일과 9일 사전투표에 기독교인 100% 참여 등을 결의했다. 김진영 기자

## 2016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및 ATS 정회원)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존회원
- 기독교대학(ABE), 목회학사(M.Div), 신학박사, 선교학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지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지역 가능
- 목회학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김시은 목사 712131407-469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열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 admissions@aeu.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특전: Sevis I-20 발행/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어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길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고베펠사는 '펄리우드 빅쇼' 행사를 통해 고품격의 진주보석 등을 선보인다.

# “펄리우드 빅쇼”

## 고베펠사 창립 12주년 맞아... '펄리우드 빅쇼' LA한인타운 2곳에서

진주 전문 회사 고베펠사가 올해로 창립 12주년을 맞이해 엘에이 2곳에서 'PEARLYWOOD 빅쇼' 라는 더욱 알찬 이벤트를 펼친다. 할리우드 쇼 못지않은 알차고 풍성한 진주보석 쇼로 만들겠다는 고베펠사의 의도가 엿보인다.

특히 이번 진주보석 퍼레이드에는 1만여 점의 진주보석이 엘에이 전시장을 화려하게 수놓게 된다. 다양한 진주보석이 전시장을 메우면서 기대 가득한 멋쟁이 고객들을 맞이한다.

고베펠사는 이번 12주년을 맞이해 창사 이래 최대규모의 '펄리우드 빅쇼' 진주보석 잔치로 기획, 다양하고도 품격높은 제품을 구비해 선보이게 된다.

고베펠사 관계자는 “1만여 점 이상의 진주보석으로 전시장을 화려하게 꾸밀 것 입니다. 정말 괜찮은 진주보석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아이템도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며 이번 빅쇼를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전시장에는 서울 강남에서 공수된 진주 보석 3종 세트 신제품을 비롯해 진주 비드 목걸이 등 다양한 스타일의 진주보석이 전시된다. 또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보석과 홍산호 인공 핵진주 신제품도 대거 선보이며 최대 80퍼센트까지 무조건 대박세일을 펼친다.

특히 이번 이벤트는 그 어느 때의 진주 보석 쇼보다 한인 여성고객들의 만족도도 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LA 한인타운 2곳에서 개최되는데 4월 5-6일까지 이틀간은 8가와 옥스포드 길의 옥스포드팔레스 호텔 2층 대연회장에서, 이어서 7-10일까지 4일간은 윌셔 플레이스 선상의 중앙일보 교육 문화센터 지하 1층(690 Wilshire Pl, LA CA 90005)에서 각각 열린다. 행사장 오픈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문의: 323-999-1558



하나크리스천센터에서 2030 청년 돌직구 토론회가 열렸다. 청년들은 각각의 주제에 따라 자신들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 “기독교인들 클럽 가면 안돼요?”

## 하나크리스천센터, 2030청년들과 함께...Face to Face 돌직구 토론회 개최

청년들이 모여 기독교인들의 신앙적 고민들을 놓고 토론한 “페이스 투 페이스 (Face-To-Face) 돌직구 토론회”라는 특별한 행사가 3일 하나크리스천센터(담임 조나단 리 목사)에서 열렸다. 굳이 번역하자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돌직구성 질문 토론을 하자는 것이다.

이날 행사의 토론자는 9개 교회에서 온 20, 30대 청년들이다. 이 틈에 조나단 리 목사(하나크리스천센터 담임), 허번 목사(새로워지는교회 담임), 아모스 리 목사(임마누엘침례교회 담임), 나승렬 목사(약속교회 담임), 박세현 목사(예수로교회 담임) 등도 함께했다.

토론 주제는 기독교인이 클럽에 가도 되는가? 비기독교인과 결혼해도 되는가? 동성애는 죄인가? 문제 많은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등 6가지였다.

기독교인들이 클럽에 가는 문제에 대해 청년들은 클럽 자체에는 큰 문제 의식을 갖지 않았다. 다만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여러 주제에서 돌직구가 오고갔지만 동성애 문제는 좀 달랐다. “동성애는 죄이지만,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도와야 한다,” “생물학적으로 순리에 어긋나는 병이다,” “동성애의 가장 큰 심각성은 어린 아이 교육에 있다,” “동성애자들이 기독교인들만 겨냥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등 동성애를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나중에 모든 토론을 마친 후 최종 표결에서 청년 12명은 동성애를 죄로 규정했고 3명은 죄가 아니라고 했다.

조나단 리 목사는 토론회 후 “우리 청년 세대들의 신앙적 고민들을 재미있고 캐주얼하게 토론해 보고 싶었다”면서 “청년들과 교역자들이 함께 토론하는 가운데 청년들이 신앙 문제에 관해 스스로 해답을 찾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교회 주소는 1135 Crenshaw Blvd., LA CA 90019이고 문의는 전화 323-934-0058으로 하면된다. 김준형 기자

# 김종대 장로 OC한인회장 출마선언 기자회견 가져



김종대 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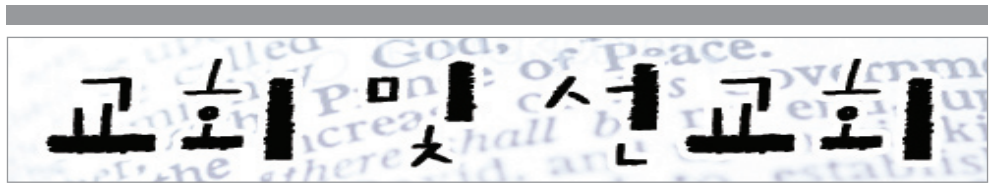
현 24대 OC한인회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종대 장로가 25대 OC한인회 회장에 출마한다. 김종대 장로는 5일 오전, OC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장로는 회장 출마 이유에 대해 “한인회의 미션과 목적은 첫째도 봉사 둘째도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봉사 안에는 각종 행사를 포함, 주류사회와 연결하는 가교역할 및 언제나 한인들의 인권이나 권익신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3~14대(1994~98)에서 이사와 부회장으로 OC한인회에 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 24대에서는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OC한인회의 정체성 회복은 물론, 타운에 다

시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한국인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고향, OC한인사회를 다시 활기찬 우리들의 타운으로 되찾아 보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김 장로는 성거공약으로 △OC타운 살리기 △주류사회와의 관계 회복 및 다민족과의 공생 △소통과 통합 △한인회 위상 세우기 △한인회관 완성을 위한 제안 등을 내놓았다.

이로써 OC한인회 25대 회장 선거는 현 24대 김가등 회장이 재출마를 선언함으로써 경선을 통해 선출하게 됐다.

이영인 기자



<p><b>LA 지역</b></p> <p>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비침중학교 / 토요새벽-17와비몬트코너 주중새벽-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p> <p><b>김기섭 담임목사</b> www.LASarang.com</p> <p><b>LA사랑의교회</b> 평신도를 깨우고, 이만2세를 책임지며, 이만1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순종하는 교회</p> <p>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213)386-2233</p>	<p>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p> <p><b>연제선 담임목사</b></p> <p><b>LA 온하늘교회</b></p> <p>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 90019 T.(818)983-9024</p>
<p>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p> <p><b>장태원 담임목사</b></p> <p><b>LA세계선교교회</b>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p> <p>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 90006 T.(213) 909-6473 / www.missionla.org</p>	<p>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새벽회 오전 6:20</p> <p><b>한천영 담임목사</b></p> <p><b>갈릴리선교교회</b> 함께웃고 함께주는 공동체</p> <p>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323) 735-6412 / gmcchurch.com</p>
<p>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월-토) 저녁 오후 7:30 (화, 목, 금)</p> <p><b>엘리아 김 담임목사</b></p> <p><b>나눔과 섬김의 교회</b>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p> <p>978 S. Hoover St. #203, LA, CA 90006 T. (213) 272-6031</p>	<p>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p> <p><b>진유철 담임목사</b></p> <p><b>나성순복음교회</b>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p> <p>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p>
<p>주일예배1부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p> <p><b>한기형 담임목사</b></p> <p><b>나성동산교회</b>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p> <p>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p>	<p>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 EM 예배 오후 1:00 토요일부부 토 오전 9:30-12:30 한어청년부 오후 1:30 아미나기도방 수/목 10:30</p> <p><b>서건우 담임목사</b></p> <p><b>나성서부교회</b> 평안하여 든든히 사는 교회</p> <p>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pla.org</p>
<p>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p> <p><b>박현성 담임목사</b></p> <p><b>나성열린문교회</b>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p> <p>328 W. 6th St., LA, CA 90020 T.(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p>	<p>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p> <p><b>김영철 담임목사</b></p> <p><b>나성제일교회</b>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찬 교회</p> <p>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213) 388-7101</p>
<p>1부예배 오전 9:00 유초등부·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주일 오후 1:30 수요집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p> <p><b>정우성 담임목사</b></p> <p><b>남가주광염교회</b>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p> <p>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p>	<p>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0:30 EM예배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30 목요찬양예배(목요일)오후 7: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0:30</p> <p><b>김경철 담임목사</b></p> <p><b>산타모니카교회</b> 죽도록 섬기는 교회</p> <p>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s.us</p>
<p>1부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EM예배 오전 10:00</p> <p><b>조인수 담임목사</b></p> <p><b>써니사이드교회</b> 하루를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p> <p>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p>	<p>주일예배 오후 1: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00 토요일복된 모임 오전 11:00</p> <p><b>김영구 담임목사</b></p> <p><b>나눔장로교회 엔키아선교회</b>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p> <p>3407 W. 6th St. #804, Los Angeles, CA 90020 T. (310) 404-6219</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p> <p><b>김요섭 담임목사</b></p> <p><b>열매교회</b>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p> <p>3960 Wilshire Blvd. #505, Los Angeles, CA 90010 (월·화·목·토·일) T.(213)380-0071</p>	<p>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예배 오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30</p> <p><b>정장수 담임목사</b></p> <p><b>올림픽장로교회</b>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p> <p>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p>
<p>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형 (정부 배넌트 지원)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메디칼, 임신부 메디칼</p> <p><b>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b></p> <p><b>요한 선교교회</b></p> <p>gkal44@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p>	<p>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p> <p><b>류종길 담임목사</b></p> <p><b>임마누엘선교교회</b>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p> <p>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323) 766-9922 / www.laimch.com</p>
<p>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b>신승훈 담임목사</b></p> <p><b>주님의영광교회</b>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p> <p>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p>	<p>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p> <p><b>이명수 담임목사</b></p> <p><b>청운교회</b> 선교에 흠뻑 소.친.초.진.초.의.호를.바른.교회관의.호를</p> <p>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p>
<p>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p> <p><b>민중기 담임목사</b></p> <p><b>충현선교교회</b> 불러세(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p> <p>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 549-9199 / choonghyun.org</p>	<p>주일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기도회 오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00(토) 중고등부 오전 11:00</p> <p><b>곽부환 담임목사</b></p> <p><b>한마음제자교회</b> 심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p> <p>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p>
<p>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p> <p><b>강지현 담임목사</b></p> <p><b>한우리장로교회</b> 말씀과 애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p> <p>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p>	<p>문/서/선/교에 앞장서는 <b>기독일보</b></p> <p>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p>
<p><b>김범수 치과</b> General &amp; Cosmetic Dentistry</p> <p><b>Bryan Kim D.M.D.</b></p> <p><b>김범수 치과</b></p> <p>1011 S. A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19 T.(213)389-0937, (213)389-0938 F.(323)735-1937</p>	<p>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b>대표 주해용 목사</b></p> <p><b>오늘 성경 읽으셨나요?</b></p> <p><b>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b> Ezra Bible Reading Ministry</p> <p>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p>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일에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영성침례회 오후 8:00  
금요일성경부 오후 8: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성경공부 오전 9:30 주일학교 - 주일 오전 10:30  
영어회중예배-주일 오후 1:00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872-2405 교회,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침례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수요일에 오후 7:30  
금요일에 오후 9:00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일에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토요일에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욱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토요일에 오전 6:00  
금요일에 오후 8:00

**이승준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중보기도회 오전 10: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수요일에 오후 7:3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일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ia@hnsi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사우스 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일에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이창민 담임목사**

**L.A. 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일에 오후 7:30  
금요일에 오후 9-11시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후 1:30  
한인청년부 오후 2:15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살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 / 2부 11:00  
중고등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말씀까지 내 중심이 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에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강신진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EM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금요일성경(청년부) 오후 1:30  
금요일성경(대중)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7:00 (토) 오후 1:00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후 12:30  
유년부 오전 10:30

중고등부 오전 10:30  
한인청년 오후 12:30  
수요일에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유년부 오전 11:00  
EM 오후 1: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금요일성경예배 오후 8:00 (금)  
Awana 오후 8:00 (금)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금)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천이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9:30  
주일 3부 오전 11: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후 1:30  
금요일성경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회**  
주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 사랑의빛선교회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EM/YOUTH 예배 오후 1:3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30  
새벽예배 기도회 오전 5:30 (월-금)  
새벽예배 기도회 오후 7:45

**박정환 담임목사**

**예수인교회**  
Christian Missional Church

10452 Louise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434) 229-6597 / cmc-12.com / yesuin2@gmail.com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에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6:00 (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경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김민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West Hills Presbyterian Church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예배 - 오전 8:00 / 9:45  
금요일성경 - 저녁 7:45  
새벽예배 월-금 - 5:30, 토 6:00

LA 예배처소  
주일(영성예배) 9:30am, 11:30am  
수요일(영성예배) 7:15pm  
수요일(영성예배) 월-금 5:30am  
19514 Pinalia St., Northridge, CA 91326 1515 S. Santa Fe Ave., LA, CA 90021  
T. (818) 893-5887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예수 다시 사셨네”

남가주 지역 부활절 연합예배 ... 10여 개 지역에서 연합으로 드려



LA 동부 지역 성도들이 아름다운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다.

[면으로부터 계속] 새벽 5시 30분 LA 동부 지역 연합예배에는 2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했고 이 지역 목회자들이 순서를 맡았다. 행사를 주최한 LA동부지역교역자협의회 회장 송재호 목사(할렐루야한인교회 담임)가 사회를 맡았으며 김신일 목사(유니온교회 담임)가 대표기도, 고태형 목사(선한목자교회 담임)가 설교, 최준우 목사(엘마오장로교회 담임)가 봉헌기도, 고송희 목사(아름다운교회 담임)가 광고, 이승준 목사(하나로커뮤니티교회 담임)가 축도했다.

고태형 목사는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들(행10:34-43)”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 예배에서는 각 교회 성가대가 연합

국과 미국, OC 지역 교회의 부흥과 연합을 위해, 유우경 집사(OC평신도연합회)가 다음 세대의 비전과 헌신,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합심기도를 인도했다. 광고 시간에는 임현수 목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서준석 집사(OC교회 회계)와 이지원 집사(미주여성교회 홍보부장)가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 결의문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세상에 선포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며 부활의 증인임을 확신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따라 평생 선교와 전도를 위해 헌신한다. 우리는 한국과 미국의 영적 부흥을 위해 날마다 기도와 사랑



벨리 지역 성도들은 은혜와평강교회에서 연합예배를 드렸다.

해 “살아계신 주”를 찬양했고 예배 헌금은 이 지역 선교 기관과 차세대 장학금에 사용할 계획이다.

동일한 시간 인랜드 지역에서 열린 연합예배에서는 100여 명의 성도들이 예배드렸다. 인랜드지역교역자협의회가 주최한 이 예배에서도 각 교회 목회자들이 고틀루 순서를 맡았다. 이희철 목사(갯스윌연합교회 담임)가 사회, 오경환 목사(안락교회 담임)가 대표기도, 박성호 목사(인랜드노리교회 담임)가 말씀봉독, 윤석길 목사(에덴선교회 담임)가 설교, 박혜성 목사(남가주웨슬리교회 담임)가 헌금기도, 손상헌 목사(두란노교회 담임)가 광고, 박신철 목사(인랜드교회 담임)가 축도했다. 윤석길 목사는 “믿는 자가 되라(요 20:24-29)”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또 북한에 억류된 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임현수 목사의 석방을 위해, 북한

을 실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우스베이 지역은 사우스베이한인목사회 주최로 대흥장로교회에서 200여 명이 예배 드렸다. 예배 인도에는 윤목 목사(한인소망교회 담임), 기도는 김병용 목사(서서장로교회 담임), 성경봉독은 박종희 목사(코이노니아선교회 대표), 설교는 이황영 목사(남가주기쁨의교회 담임), 봉헌기도는 안병권 목사(가나교회 담임), 축도는 김관중 목사(새창조교회 담임)가 했다. 사우스베이 지역 교회 연합찬양대가 특별 찬양을 했고 사우스베이한인목사회원들이 봉헌 찬송을 했다. 이황영 목사는 “굴려진 돌(막16:1-15)” 제목의 설교를 했다.

또한 특별히 사우스베이 지역 복음화와 교회, 교민을 위해 나주목사(울타리선교회 대표)가, 미국과 다음 세대를 위해 김현수 목사(토랜스선한목자교회 담



사우스베이 지역 성도들이 대흥장로교회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고 있다.

동포와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했다.

오렌지카운티(OC) 지역은 OC기독교교회협의회, OC한인목사회, OC기독교평신도연합회 주최로 엘바인노리교회에서 연합예배를 드렸으며 교협 임원들이 주요 순서를 맡았다. 신현철 목사(부회장)가 사회, 고현종 목사(감사)가 대표기도, 박용일 목사(서기)가 성경봉독, 민승기 목사(회장)가 설교, 조형수 목사(부회장)가 헌금기도, 이호우 목사(수석부회장)가 광고, 민경영 목사(이사장)가 축도했다. 민승기 목사는 “평화의 언약(민25:1-13)”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예배 중 권혁빈 목사(엘바인노리교회 담임)가 환영인사를 전했고 합심기도 시간에는 광재필 목사(OC목사회장)가 한

임)가, 임현수 목사와 북한에 억류된 사람들의 석방을 위해 박용기 목사(사우스베이모님선교회 대표)가 각각 기도를 인도했다.

이 외에도 벨리 지역은 샌퍼난도밸리한인교회역자협의회 주최로 은혜와평강교회에서, 중부 지역은 남가주중부교회협의회 주최로 감사한인교회에서, 빅토빌 지역은 빅토밸리한인목사회 주최로 새생명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벤추라 지역은 벤추라교회역자협의회 주최로 벤추라감리교회에서, 앤털롭밸리 지역은 앤털롭밸리교회및목회자연합회 주최로 랭카스터사랑의교회 등에서 예배를 드렸다.

김준형 기자





남가주교협 연합합창단이 '할렐루야'를 합창하고 있다.

# “죽어야 다시 산다”

## 남가주교협 부활절 연합예배 통해...교회와 성도의 회개 촉구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남가주교협, 수석부회장 김재울 목사) 주최 부활절 연합예배가 27일 부활 주일 오전 5시 30분 아가페선교회(담임 김요한 목사)에서 열렸다.

남가주교협은 부활주일을 맞아 죽어야 산다는 믿음으로 “죽어야 산다”는 교회의 부활 메시지도 함께 선포하며 교회 혹은 개인이 회개를 촉구했다.

김재울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연합예배는 오픈도어 바다위십의 온몸찬양을 시작으로 정시우 목사(남가주교협 명예회장) 기원기도, 다함께 ‘주님께 영광’ 찬송, 엄규서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기도, 정종윤 목사(남가주교협 부회장) 성경봉독, 남가주교협 연합성가대 ‘할렐루야’ 찬양, 김요한 목사 설교, 남가주교협 이사장 최형호 장로 봉헌기도, 남가주장로총장단(단장 정진식 장로)가 ‘Majesty’ 봉헌특송 등의 순서로 진행된 후 특별기도 순서가 진행됐다.

이날 김요한 목사는 “활의 의미”(벧전 1:3-9) 주제 말씀 선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지 사흘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사함

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다”며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것이다”라며 부활 주일을 맞이해 다시금 하늘 소망을 품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특별기도 시간에는 조병국 목사(남가주교협 부회장)가 ‘남가주 모든 교회의 연합과 부흥 발전을 위하여’, 강순영 목사(아주사 나무 준비위원회 상임총무)가 ‘아주사 부흥110주년을 맞아 미국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기를’, 백지영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직적회장)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교회의 거룩성 회복을 위하여’, 신중환 목사(안양대학교 총동문회 회장)가 ‘평화통일과 북한에 억류된 임현수 목사의 석방을 위해’ 등의 주제로 기도순서를 가졌다.

특별기도 순서가 끝난 후에는 이주철 사관(남가주교협 총무)가 광고를 한 후 다같이 “무덤에 머물러” 찬송을 불렀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 이태환 목사(남가주한인원로목사회 증경회장)가 축도를 함으로 모든 부활절 연합예배가 마무리됐다.

이영인 기자



LA기독교교회협(회장 류당열 목사)도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다.

# “LA기독교교회협 부활절 연합예배”

김재울 수석부회장 측 남가주교협이 27일 부활주일 새벽 5시 30분 세계아가페선교회(담임 김요한 목사)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는 동안 류당열 회장 측 LA기독교교회협의회도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들은 서울국제공원 체육관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다. 이 예배에는 한인들과 함께 라티노들도 참석했다.

회장 류당열 목사가 사회를 맡았으며 성찬식을 집례했고 이동명 목사가 기도하고, 로드리게즈 목사와 이상기 목사가 설교했다. 축도는 서정기 목사가 했으며 예배 헌금은 노숙자 사역을 하는 글로리아 김 선교사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이 예배에서는 캘리포니아 25지구 상원의원에 출마한 김태호 박사에게 목회자들이 인수하는 시간도 있었다.



웨스트체스터연합교회에서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

# “뉴욕·뉴저지 부활절 연합예배”

## 총 40개 교회가 연합으로 예배 드리며...부활 기쁨에 동참해

2016년 부활절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 교회들이 일제히 27일 새벽6시 연합예배를 드리고 부활의 기쁨에 동참했다.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는 뉴욕지역 27개 교회와 뉴저지 지역 13개 교회에서 지역별로 교회들이 연합해 드리며 힘든 이 민사회 환경 중에도 부활의 신앙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을 다짐했다.

최근 연합사업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올해 부활절연합예배에는 뉴욕과 뉴저지에서 평소보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 예배를 드렸다. 지역마다 편차가 있지만 큰 예배당을 가득 메운 장소들이 예년보다 많았다.

또 설교자들의 메시지도 부활이 과거의 일회성 사건이 아닌 현재 진행형 사건임을 강조하면서 부활신앙의 의미를 깊이 새겼다.

김대원 기자

### O.C./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주일 9:00AM 새벽예배 월-금 5:30AM  
주일예배 2부 주일 11:00AM 토 6:30AM  
주일학교 주일 11:00AM NEX(한국어) 토 9:30AM-10:00PM  
대학원부Ecollege 주일 2:00PM NEX Kids club 주일 12:40AM-1:40PM  
제지훈련(사역훈련) 화-목 7:30PM

**김일영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NEXT Sa-Rang Church  
11 Musick Irvine, CA 92618 Tel (949)829-0010(office)  
www.nextsarang.com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일기도회 9: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2부) 1:30pm 금요일전날야예배 8:0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다들날) 7:00am  
화요일모기도회 7:00pm 토요일전날야예배 7:00pm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김영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원부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병의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생가족 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원예배 오전 11:00

**남가주 벤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806-2562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1:00 민경업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교회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흠여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 & Puent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박재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남가주 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4552 Lincoln Ave.#207, Cypress, CA 90630  
T.(714) 952-0191 / www.socallfgc.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분당 허귀암 담임목사  
2부 주일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공부 저녁 8:00 분당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놀워한인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562)802-4959 C.(714)308-7038 / usa8291@gmail.com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안창훈 담임목사  
영아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저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9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EM 주일 오전 11:30 김일권 담임목사  
금요예배 오후 8시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다감사교회**  
The Gamsa Community Church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988-3321, www.dagamsa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고현종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1부예배 오전 8:45 금요사바 오후 7:30 이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 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4부 청년예배 오후 1:30 김한오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월-금 새벽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새벽 사바기도회 새벽 6:00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9:00 P-lander(Korean) 오전 11:00 이동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Children(1-9) 오전 11:00  
금요일 기도모임 오후 8:00 Youth(7-12) 오전 11:30  
토요일 금요일, 에프타스콜 College 오후 1:00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250-1111 / www.beautiful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권혁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어대학원부 오후 2:00  
KM대학원부 오후 2:00

**얼바인 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주일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홍성준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원부 오후 1:30

**얼바인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 청년 영예 박경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어) 청년부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0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예)

**얼바인 침례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기 오전 6: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291-5901 / (714)833-2568 daekwon.org

주일예배 오전 9:00 & 11:50 김민재 담임목사  
새벽예배 화-토 5:30, 토 6:00  
금요예배 오후 7:30

**예진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4221 Rose Dr., Yorba Linda, CA 92886(Worship Center)  
T. (714)788-3677 / www.yechinchurch.com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영아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영아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오렌지카운티재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금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머무리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주혁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6:00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플러튼 채플 Fullerton Chapel 최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목요 영성집회: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 (657)217-5558

주일 삼미 예배 오전 9:00am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8:00pm  
주일 한국어 예배: 오전 11:00am 새벽기도회: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오전 11:00am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조원재 담임목사  
수요일예배 오후 8:00

**하나님의 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gracechurch.org



# 진주전문회사 고베펠사 창립 12주년 기념

고베펠 진주보석소  
신제품과 와인파티까지?  
펄리우드쇼로 가자!~

# 펄리우드 빅쇼

## BIG SHOW

# PEARL LLYWOOD

# 前無後無 天무후무 진주보석 퍼레이드 고베펠 신제품 1만여점 총출동!!

고베펠제품은 레이저공법과 수제품으로 서울 강남고베펠공장에서 세공됩니다. 앞서가는 디자인 정교하고 세련된 세공으로 미국 전지역에서 모든 한인여성들에게 인정 받는 고베펠제품 2016년 신제품을 이번 행사에서 만나보세요.

여성의 우아함을 돋보이게하는  
진주 비드 제품 전품목 최대 80% 세일

경제적인 가격대 진주 제품부터 최고급 아코야진주까지 일본공법 한국세공 고베펠 진주비드제품을 만나보세요.

2016 명품  
아코야진주  
전시판매

부부금실  
돈재수  
홍산호

## 서울 강남세공 사파이어 에메랄드 루비 유색보석 2016신제품 세트 전시판매



한국세공 진주 3종세트  
신상품 대거 출시  
서울 강남세공 레이저공법



홍산호 신제품 대거 전시  
부부금실 금전운을 향상 시켜주는  
비드목걸이 / 3종세트 / 반지



### 진주보석+와인=대박 파티!!

옥스포드 팰리스 호텔 행사장에서  
무료 와인 시음과 선착순으로 200분께  
와인 1병을 증정합니다!

와인 한병  
200분께  
무료증정!

고베펠 와인 행사는 4월 5일 - 4월 6일  
오후 3시-6시까지 진행됩니다.

**엘에이 행사일정 (1)** 와인파티 3시부터 6시까지  
일시: 2016년 4월 5일(화)-6일(수), 2일간  
장소: 옥스포드 팰리스 호텔 2층 대연회장  
745 S Oxford Ave, LA, CA 90005 (8가와 옥스포드)

**엘에이 행사일정 (2)** 중앙일보행사에서는 와인파티를 하지 않습니다.  
일시: 2016년 4월 7일(목)-10일(일), 4일간  
장소: 중앙일보 교육문화센터(지하 1층)  
주소: 690 Wilshire Pl, LA CA 90005



•특별기고

# 제 8차 KWMC 한인세계선교대회 남가주 개최의 의미와 전망(上)

제8차KWMC한인세계선교대회가 오는 6월 6~10일까지 남가주 아주사퍼시픽대학교에서 열린다. 이 선교대회 역사가 처음으로 남가주에서 열리는 바, 그 개최 의미와 전망을 알아본다. 본 자료는 KWMC 본부장 김경일 목사의 동역으로 게재한다. 김경일 목사는 현재 세계한인선교사회(KWWMF) 사무처장으로, 약 25년차 현장선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선교행정이며, 한국 총신대학신학대학원과 인디애나 그레이스대학박사원(선교학 박사)을 졸업한 선교전략가이다. -편집자 주

먼저 독자들이 한국 선교에 대하여 알아야 할 중요 내용이 있다. KWMC와 KWMA, 그리고 KWWMF 라는 한국 선교의 큰 삼대 축을 이루는 단체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 첫째는 미국을 대표하는 '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회'(KWMC - Korea World Mission Council for Christ), 둘째는 한국 중심의 '한국세계선교협회'(KWMA - The Korea World Missions Association)가 있다. 그리고 전세계 5대양 6대주 171개 국에 파송된 한인선교사들 27,205명의 유일한 대표 단체인 '한인세계선교사회'(KWWMF - Korean World Missionary Fellowship)가 있다.

한국 선교의 양적, 질적인 면에서 큰 영향과 선교지 확장을 가져온 명실상부한 선교 올림픽, 대축제의 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금년은 중북부 시카고에서, 전체 미국 한인들의 삼분의 일 이상이 거주하며, 약 1,400여 한인교회들이 밀집되어 있는 남가주에서, 제8차한인세계선교대회를 개최함으로, 그동안 지리적, 환경적 영향으로 소외되었던, 남가주 한인교회들의 선교 동력화와 종말론적 선교 완성의 비전을 공유하는 역사적 의미를 가져올 선교대회로 치뤄질 전망이다.

## 2. 한국교회 선교사 파송의 급격한 저하

"미션투데이(http://www.Missiontoday.co.kr/archives/5019) 2013년 1,003명, 2014년 932명, 2015년에는 528명으로 급격한 파송 수 저하 나타내..."

KWMA는 현재 한국교회의 선교사는 총 27,205명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은퇴 등으로 인한 선교사 자연감소 및 이탈 등을 고려할 때 향후 10년 내에 한국 선교사는 6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 미션투데이의 예상처럼, 한국 사회의 인구 구조 자체가 고령화로 노년층의 증가, 저 출산으로 인한 젊은 인구의 감소 같은 외부적인 요인과 더불어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전체 한국교회 안에 주일학교가



김경일 목사  
KWMC 총괄본부장

없는 곳이 약 70%라는 공공연한 비밀(?)과 일부 대형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한국교회에서 청년들의 동공화 현상이 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5~10년 이후의 참담한 미래는 가히 상상이 된다.

실제로 미래의 한인 선교사 자원이 될 청년 대학생들의 동원의 장이 되었던 선교한국대회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발생했다. 그동안 참가자 수가 5,000~6,000명 선을 유지하다, 2012년에는 3,820명으로 줄어들었고, 2014년에는 2,250명으로 감소세가 더 심했다(기독신문 2016년 1월 15일자 참조).

이와 같이 "각종 대학생 선교 단체 모임의 참석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라는 우려의 소리가 심각히 들려오고 있다.

KWMA의 한인 선교사 파송 자료 10년을 분석해 보면, 한인 선교사 파송 숫자는 2007년 2,801명을 정점으로, 2013년에는 1,003명으로까지 감소했다. 그리고 2015년에는 528명으로 한인 선교사 파송 숫자가 급격히 격감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현

재 한국 교단선교부에서는 파송되어 나가는 신입 한인 선교사들보다 는, 전세계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목사들을 선교사로 허입하는 것과 개별적으로 선교지에 나간, 일명 독립군 선교사들을 재 파송하는, 밀알 줄기(?)가 교단별 파송 선교사 증가에 있다(2012년 KWMA 조사에 의하면, 한국에서 발표되는 수보다 적어도 선교사의 수가 만 명 정도는 더 있는 것으로 추정)).

따라서 계속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은퇴 등으로 선교사 자연감소 및 이탈 등을 고려할 때 향후 10년 내에 한국선교사는 6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미션 투데이는 다소 충격적인 의견을 냈다. 필자 역시 그 의견에 일정 부분 동의한다. 왜냐하면 현재 새로 파송 받아 현장에 나가는 신입 선교사의 수가 그리 많지 않고, 또한 일선의 파송 선교사들의 평균 나이가 거의 약 45~50대 이상에 해당하기에, 향후 10년에서 20년 사이에 많은 선교사들이 은퇴를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한국 선교사의 수가 10년 후에 60%이상 감소하는 비극적 상황을 맞이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더 한민족에게 기회, 즉 제2의 평양대부흥의 강력한 역사와 같은 대각성의 기회를 한국교회에게 반드시 주실 것

으로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받은 첫 사랑을 진정 회개, 회복의 대각성 없이, 다시 말해서, 우리 한민족에게 부여한 영광스런 선교적 사명의식을 망각, 상실하여, 현재와 같이 한국교회가 총체적 난맥(황금만능주의, 배금주의, 이기주의, 도덕, 윤리적 타락... 등등)상을 그대로 방치하고 치유되지 않는다면,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처럼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라는 참혹한 현실이 실제, 우리에게 준엄하게 다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 3. 한국 선교의 대 부흥의 원인과 전망

1977년에 8명의 선교사들로부터 시작된 한인세계선교사회(KWWMF)는 1988년에 태동한 KWMC 한인세계선교대회와 더불어 장족의 발전을 해 왔다.

즉 1979년 93명의 한인 선교사의 숫자가, 1988년 서울올림픽이 끝난 이후인 1989년에는 1,178명으로 처음으로 천 명을 돌파하였고, 그 이후로는 선교사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표 1〉을 보면 전체 한인 선교사 파송 숫자가 2002년 13년 만에 일만 명에 다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그로부터 만 7년되는 2009년에는 드디어 1,427명이 파송을 받음으로, 전체 한인 선교사들의 총 숫자가 20,840명, 즉 이 만 명 한인 선교사 시대가 도래한 것을 알 수 있다.

KWMA 2016년 1월 7일 발표에 의하면, 현재 전세계 오대양 육대주 171개국에서 선교사역을 하는 한인 선교사의 총 숫자는 27,205명이다.

이와 같이 1979년 93명의 한인선교사의 숫자가, 약 36년이 지난 2015년도에 27,205명으로 약 3,000% 이상 비약적 성장을 이룸으로, 세계 제 2위의 선교사 파송 대국으로 부상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권적 축복을 받았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한국교회의 세계선교를 위한 열정과 헌신은 그 질적인 면에서도 세계 최고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전 세계 선교사 파송 세계 1위인 미국은 파송된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평신도 선교사들로서, 특히 단기 선교사 비중이 많다. 대부분 복음의 최전선 사역(교회 개척, 신학교, ...) 보다는, 주로 NGO 나 일반비자로 의료, 학교, 구제 등등, 복음선포 보다는 사회 간접사업에 대부분 집중하고 있다. <계속>

### 연도별 선교사 현황

구분(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파송선교사(명)	16,616	18,625	20,503	22,130	22,685	24,001	25,665	26,703	27,767	28,326
이중소속(명)	1,984	1,856	2,180	2,579	1,341	1,341	1,847	1,916	2,180	2,243
실제 파송선교사(명)	14,896	17,697	19,413	20,840	22,014	23,331	24,742	25,745	26,677	27,205



〈표 1〉 출처: KWMA 연구개발실(KWMA 2016년 1월 7일 발표)

# Church Property Solution 교회부동산 전문회사

Division of Max Capital Group, Inc.

## 교회 부동산에 관한 모든 것! 전문가에게 맡기십시오!

건물은 건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장소와 건물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사역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Church Property Solution은 부동산 활용을 극대화 함으로써 사역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게 지역 교회들을 돕는 교회부동산 전문회사입니다.

**교회 부동산 매매**  
Church Property Sales

**교회 부동산 리스**  
Church Property Lease

**교회 미디어 디자인**  
Media Design & Consulting

부동산 매매와 리스 | 인더스트리/오피스 건물/비즈니스 팍을 교회로 변경 사용 | 교회 건물 렌트 | 건축/증축/보수 상담 | 교회 부동산 용자 각 시의 CUP 받는 것을 대행 | 이메일 디자인 | 교회 미디어 상담/디자인 | 이에 필요한 모든 벤더들과 협력

**Mark Kim, CEO/Broker**  
BRE # 01338646, NMLS # 3933349  
PH (909)643-3994  
Email: markk@churchpropertysolution.com

**Stephanie Jung, COO**  
BRE # 01849106  
PH (562)480-6912  
Email: sjung@maxcapitalgroup.org

**Max Capital Group, Inc**  
135 S State College Blvd Suite 200  
Brea, CA 92821  
PH (714)987-6120 | Fax (909)635-6116  
www.churchpropertysolution.com  
BRE # 01987951 NMLS # 1425276



**전자보청기**  
**\$300** 상세한 정보 보내드립니다.  
 JongKim6702@gmail.com  
**T: (213)270-5268 김중명**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중고차 황제 김기형

**한미사랑**  
 한의사 **Zo'e 조애**  
**Tel: (213) 718-8275**  
 이제마 사상 체질 맥 30년 전문  
 체질맥, 장부맥, 병맥, 설진

심혈관 질환, 간질환, 중풍, 소화기문제, 내분비문제, 부인병, 고혈압, 당뇨, 부종, 알러지, 신장병, 각종통증, 갱년기, 생리통, 생리불순 (아들 원하시는 분)

2120 W. 8th St, #208, LA, CA 90057(8th & Lake St.) (일수금 예약 필수)

주님미디어닷컴 **전도용품** 및 **배너** 할인행사  
**오픈 기념**  
 CD Printing \* Papersleeve=\$300  
 원형배너 스탠드포함 \$65 (일시유급 제외한 전 품목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에 앞장서는 탐미미디어에서 귀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역과 사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성시기 위해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닷컴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참가하시는 사역과 사명을 성기도록 하였습니다.

juni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 DVD 제작전문,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서신(심내외, 장외), 제작, 연속물인쇄 전문  
 junimedia.com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튠업정비

**76 오일사용**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10% 할인**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 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BOOK BINDING**  
**DIGITAL PRINTING**  
**BANNER / BOARD**  
**FLYER / BROCHURES**  
**BUSINESS CARDS**  
**BOOKLETS**

**책자제본**  
**디지털 인쇄전문**

**EXCELPRINTING 213.383.7733**  
 2500 W. 8th St. #100, 101 Los Angeles, CA 90057

100% 천연성분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을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항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PRO-Z USA Inc. 213.434.1170**  
 미국 공식 판매처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현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제 2의 심장 "발" [카이로메아]**  
**CHIROMEA**

발에 대한 무관심으로 깨어진 신체의 내부 장기 및 근 골격계를 이제는 카이로메아로...

**인체공학적인 설계**  
 척추에 미치는 중력을 3방향으로 분산 : 디스크, 관절염 등 척추질환 예방  
 지속적으로 용천혈을 자극함으로 기력 증진

**카이로메아를 착용하셔야 할 분**  
 조금만 걸어도 힘이 없거나 발바닥, 뒤꿈치, 무릎 및 허리가 아픏다.  
 발바닥 또는 특정 발가락에 티눈, 굳은살이 생기거나 신경이 압박을 받는다.  
 성장기 어린이의 기형적 걸음걸이의 균형과 성장 촉진이 필요하다.

**사용방법**  
 남녀 구분없이 표준화 되었습니다  
 대(L)9 1/2 이상, 중(M)9-6 1/2, 소(S)6 1/2이하

**가루간장**  
 SOY SAUCE POWDER

**SOY SAUCE POWDER**는 유전인자를 변형하지 않은 콩으로만 만듭니다.

콩이 95% 들어 있어 영양분이 풍부  
 No 방부제, No 화학조미료 안심!

**골든씰** 천연항산화제  
**Golden Seal**

골든씰은 약초중의 약초로서 (KING OF KINGS)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약초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약효를 지녔다. 항생제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사용하며 감기몸살, 폐렴, 신종플루, 독감예방, 위장질환, 간염, 간경화, 중이염, 방광염, 습진, 백선 등 각종 염증 피부질환에도 좋음. 특히 마약 중독성에 최고의 해독제로도 알려져 있다.

**CHARCOAL**  
 숯가루와 질병 격음

알레르기, 아토피성피부염, 습진에 숯가루 적용  
 차콜은 인체내의 독성 성분을 제거  
 가정 상비 식품 필수!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치아미백**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 빠는 속편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서울메디칼 그룹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 토 10시~2시

**win HYUNDAI CARSON** **원현대 칼슨 HYUNDAI**

**2016 현대 소나타/엘란트라 리스스페셜**  
**0% APR, No Payments for 90 Days!**  
 Sonata 98\$/Month(3 Yrs.) Elantra 88\$/Month(3 Yrs.)

**0% APR & No Payments For 90 Days**

**2015 Hyundai Sonata & 2015 Hyundai Elantra**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www.winhy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2301 East 23rd St. Carson 90745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한수희 칼럼(3) 자존감 회복

# 5번 프리웨이는 오늘도 공사 중

낮은 자존감은 회복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에는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가 함께 들어있다. 먼저 좋은 뉴스부터 말하자면 자존감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반갑지 않은 뉴스는 자존감 회복의 과정에는 손쉽고 빠른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존감에 대한 글을 마무리 하면서 오늘은 자존감 회복에 필요한 요소들과 그 방법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어쩌면 어리석게 느껴질지도 모르는 질문으로 시작하고자 한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신에 대해 모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자존감과 관련하여 특별히 자신에게 입히고 있는 상처와, 자신을 불신하는 위험함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내가 나에게 스스로 입히는 상처가 무엇인지 알아야 건강한 자기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

손상된 자존감의 원인이 다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물론 우리의 자존감을 낮게 만든 환경적 요인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우리는 죄로 물든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 자신 뿐 아니라 우리의 자존감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 역시 죄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를 사랑했던 사람들의 최선이 우리에게 최

상의 사랑이 아니었으며, 그들 역시 상처를 가지고 서투르게 우리를 대해 왔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따라서 타인에 의해 생긴 부적절한 자존감의 원인을 밝혀내는 작업에 몰두하기 보다는 오히려 우리 스스로 입히고 있는 상처에 대해 알고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통제(control)가 가능한 것은 타인도 환경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의식적으로 사는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

의식적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의 행동과 삶의 목적, 가치와 목표에 관련된 것들을 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의식적으로 사는 노력을 하지 않고 가장 쉽게 정신을 빼신하는 방법은 자신을 당혹스럽게 하는 현실에서 도망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내가 보고 싶지 않거나 알고 싶지 않으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태도로 현실을 무시하며 사는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늘 이런 말을 하게 된다. "나도 내가 ~하다 는 거 알아. 하지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질질 끌면서 계속 그 상황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행태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자기 행동의 의미와 동기를 알리고 하지 않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자기 스스로에게 상처를 내는 패턴을 반복하는 것

이다. 의식적 삶이란 아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며, 경험하고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스스로 변하거나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의 힘을 과소평가한다. 어제의 '나'와 내일의 '나'가 같을 것이라고 은연 중에 생각하며 자신의 발전 가능성을 한정 짓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 자아는 포기하거나 부정당해서는 안되며, 실현되고 축복 받아야 한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존감을 세우기 위한 또 다른 요소는 자기를 수용하는 것이다. 나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야 하며, 나의 감정을 받아 들일 수 있어야 한다. 심폭행이나 왕따 같은 끔찍한 폭력적 상황을 경험한 후에도 불행의 원인을 자신에게 찾으려 하며 죄책감과 열등감을 갖기 쉬운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다. 자기를 위로해야 하는 상황에서조차 자신을 비난하는 경우가 우리



한수희 강사  
기독교 상담 세미나

에겐 얼마나 많은가? 부당한 상황에 처했을 때 화가 나는 것은 죄가 아니며, 상처 받았을 때 슬픈 것은 부적절한 감정이 아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화남과 슬픔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단순히 해석하는 무지를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화나고 슬픈 그 감정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며 표현하는 방법인 것이다. 절망하고 분노하고 좌절하는 그 지점이 어느 때 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는 순간이며, 그 간절함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선명히 경험하게 되는 순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 놓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일 것이다.

나의 감정을 들여다 보는 용기조차 갖지 못하고, 나의 감정을 살피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게 되면 결국 영적 가면을 쓰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실 영역을 제한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디 알아야 한다.

모든 아픔이 내포하는 두 가지 가능성은 치유의 가능성과 인격적 성장의 가능성이며, 치유와 인격적 성장을 위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기다리는 신앙적 태도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자존감 회복을 위한 세 번째 요소는 행동함이다.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자신감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과 같은 의미이며, 자신에 대한 확신에는 단순한 판단이나 감정을 넘어서는 힘이 있다. 이 확신은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이끈다. 반대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이 확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이 둘은 서로 원인이 된다. 그리하여 우리의 행동과 자존감 사이에는 끊임없는 순환고리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 자존감의 수준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자존감의 수준에 영향을 끼친다. 늘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높은 자존감을 갖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작은 것부터 행동으로 옮겨야 하며, 작은 성공들이 쌓여가는 경험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행동할 수 있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 행동을 이끌어 내는 자존감의 연료는 '신념'이다. 이 연료 탱크를 무엇으로 채울 지는 결국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결정된다. 우리는 알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과 창조주가 만든 목적과 섭리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가야 비로소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우리가 그 사실을 계속 회피하는 것은 '내가 보고 싶지 않거나 알고 싶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 처럼 살고 싶은 우리의 습성 때문인 것이다.

●교회 부동산 칼럼(2)

# 교회 자산의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주제는 한 가지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사람들은 나라나 국가 등을 생각할 때 땅이 떠오른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하셨다. (눅17:20~21)

그런데 우리는 가시적인 세상에 살고 있다. 가시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며 사명이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

하신 물질과 자산을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거나 그렇지 못하다.

교회 자산의 목적은 이윤추구에 있지 않다. 다만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자산을 활용하여서 교회의 사명을 성취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교회는 예배 모임과 사역을 위한 장소로서 부동산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장소가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적합한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여러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교회의 재정 능력에 맞는 부동산의 선택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 내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모기지를 갚지 못하여 차압을 당하였다. 어떤 경우는 다른 종교 단체의 소유로 넘어

려해야 한다. 건전한 비율은 전체 현금의 30%를 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달 현금이 10,000불인 경우 교회 건물에 대한 비용이 3,000불이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런 장소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일 평균 출석 인 100명인 교회가 필요한 공간은 150석 정도의 예배실, 친교실, 주일 학교 교실들과 교회 사무실 등일 것이다. 이 정도의 장소를 위해서는 대략 5,000스퀘어 피트 정도의 건물이 필요하다. 이런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대략 백만불 이상이 필요하다. (남가주 LA, Orange County의 경우) 백만 불짜리 부동산을 40% 다운하고 구입할 경우 월 페이먼트와 기타 비용을 포함해서 한달 건물 유지

비용을 포함해서 한달 건물 유지

비용을 포함해서 한달 건물 유지

비용을 포함해서 한달 건물 유지

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약 4,500불정도가 된다. 렌트인 경우 월 렌트가 대략 평균 3,500불정도이고, 기타 비용을 포함해서 총 비용은 구입했을 경우와 같은 4,500불정도가 된다. 이 정도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는 한달 평균 현금이 15,000불정도가 되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만약 교회가 이 같은 재정적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가장 적합한 장소를 예비하셨다는 사실이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예비하신 장소를 보여주시고 허락하실 것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3회에서 설명하겠다. ▲문의: 909-643-3994



Mark Kim 대표  
Max Capital Group, Inc



##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 봄학기 학생모집

봄학기

2016년 3월 21일(월)~5월 28일(토) 수업  
(봄학기 등록마감 3월 21일까지)

본 기독교 복음선교 연합총회에서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주 교육국의 승인을 받아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를 진리와 경건이란 학훈을 가지고 설립하고 다음과 같이 2016년 봄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p><b>모집 부문</b></p>	<p><b>신학 대학교</b> 신학과(BA) - 4년 / 126학점</p> <p><b>신학 대학원</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M.Div. 교역학 석사 과정 - 3년 / 96학점</li> <li>2) M.A. 석사과정 - 2년 / 48학점</li> <li>3) Th.M. 신학 석사 과정 - 2년 / 48학점</li> <li>4)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3년 / 48학점</li> <li>5) Th.D. 신학박사 과정 - 3년 / 56학점</li> </ol>
	<p><b>일반 대학교</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선교사 과정 - 2년 / 56학점</li> <li>2) 평신도 지도자과정 - 1년 / 36학점</li> <li>3) 평신도 성경학교 - 6개월 / 12학점</li> <li>4) 채플린 과정 - 소정 과목</li> <li>5) ESL 과정 - 1년</li> <li>6) 유치원 교사 및 원장 과정 - 1년</li> </ol>
	<p><b>홈스쿨링</b></p> <p>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정과 교육의 문제의 대안으로 크리스찬 홈스쿨링 교육을 전문으로 지원합니다. 크리스찬 홈스쿨링은 크리스찬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영성과 인성과 지성이 통합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성경적인 교육 방식입니다.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의 홈스쿨링은 무너진 가정과 교육의 회복을 위해 앞의 본질을 앞세우고 제자도를 실현하기 소망하는 가정들의 결단과 헌신을 격려하며 견고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 1학년에서 12학년까지 기독교식 홈스쿨링 방식으로 교육학 박사들과 교사들이 전문 지도합니다.</p>

\* 입학 첫학기 등록 학생들에게는 80% 장학금을 드립니다.  
\*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교과 과정 중 50%는 인터넷으로 수업이 가능합니다.  
\* 본 학교는 분기별(쿼터제)로 학생을 모집합니다.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in America (CTCS)

1508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213)999-6884(대표전화), (213)272-6031, (213)235-6889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 복새동

##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 신간 추천

**엄마 마음 크기가 아이 인생 크기를 만든다**  
장애영 | 두란노 | 268쪽

엄마의 기준이 아이의 수준을 만든다》의 저자인 장애영 사모의 두 번째 책이 8년 만에 출간되었다. 미국으로 태어난 아들 최승호의 잦은 병치레를 통해서 자녀 양육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는 '주교양 양육법'을 만들어 실천하며 살았다. 그러나 저자는 양육 과정에서 자기 내면의 문제와 맞닥뜨리게 되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성경적 마음, 성경적 자존감, 성경적 성공의 기준을 말하고 있다.



**나를 떠나지 말라**  
이시온 | 규장 | 192쪽

“눈을 감으면 눈물이 흐르고 눈을 뜨면 당신의 슬픔이 보입니다. 주님 어찌하리이까 당신의 백성을 어찌하리이까” 오늘도 주님의 눈물은 그들 위에 흐른다. 모두가 떠나버린 땅으로 향하는 외로운 길. 주님의 눈물이 부르신 길이기 오늘도 그곳으로 향한다. 이 책은 <천개의 심장> 이시온 선교사가 전하는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 하늘 아버지의 이끄심을 따르는 자의 사명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영 메시아**  
엔 라이스 | 포이에마 | 372쪽

예수의 감춰진 시간을 기발한 상상력으로 복원해낸 미스터리 장편소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출생의 비밀, 자신 안의 불가사의한 능력을 마주한 어린 메시아의 충격과 의문을 섬세하고도 대담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알렉산드리아 목수 거리의 활기, 왕의 광기와 반란의 연기 등 치밀한 조사 끝에 그려낸 1세기 팔레스타인의 풍경과 유대인 예수의 삶이 정교한 태피스트리처럼 펼쳐진다.



**와우! 예레미야 70년**  
조병호 | 통독원 | 208쪽

이 책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닮았다고 말했던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예레미야를 집중적으로 통찰하여 쓴 책이다. 저자는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한 70년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당시 국제정세인 앗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의 흐름까지 살펴서 크게 4가지 의미로 살펴보았다. 저자는 지난 27년간 한국 교회에 성경통독을 퍼뜨리고, 학문화한 성경통독 전문가이다.



### REVIEW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 “이 시대 모든 교회가 ‘센터처치’가 되기를 소망한다”

### 교회의 중심(센터)은 복음 중심, 지역 중심, 공동체 중심이어야 해

뉴욕 맨해튼 한가운데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리더교회에 향한 관심은 지대하다. '도시에서는 복음화가 어렵다?'라는 고정관념에 역행하는 이곳을 향한 관심은 세계 각지의 목회자와 선교사들, 평신도 지도자들이 탐방하고 참관하고 리더교회 목회자인 팀 켈러 목사와 만나 뉴욕이라는 이 도시에서 열매 맺는 비결을 듣고 싶어 한다. 이에 대해 팀 켈러 목사의 대답이 바로 이 책이다. 예배 형식이나 프로그램 등이 아닌 바로 '신학적 비전'을 나누고 있다. 그는 버지니아 주에서 10년, 뉴욕 도시에서 20년의 목회 생활을 돌아보면서, 리더교회들과 함께 이 시대 복음의 씨앗이 뉴욕 지

역에서 어떻게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는지 수많은 시간과 기도와 눈물로 비전을 공유하였던 것이 바로 그 답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팀 켈러 목사는 리더교회들의 주보와 예배 형식이나 다른 어떤 것을 보지 말고 이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이 시대 모든 교회가 복음이 센터가 되고, 지역이 센터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센터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리더교회들과 함께 고민한 8가지 큰 신학적 비전은 다음과 같다. 1. 복음은 무엇이며, 어떻게 이 복음을 현대인의 마음에 다가오도록 제시할 것인가? 2. 문화는 어떤 모습이며, 우리는 문화에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대항하면서 소통할 것



팀 켈러의 센터 처치  
팀 켈러  
두란노 | 800쪽

인가? 3.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도심, 외곽, 신도시, 시골 등)을 공공 영역과 문화생산에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그리스도인이 참여할 것인가?

4. 교회 안의 다양한 사역들(말씀, 봉사, 공동체, 교육 등)어떻게 상호 연결할 것인가? 5. 우리 교회는 얼마나 혁신적이며, 얼마나 전통적이어야 하는가? 6. 우리 교회는 도시와 지역 안에서 다른 교회들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7. 기독교의 진리를 세상에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복음의 씨앗이 그대로 있지 않고, 도시라는 밭에 심겨지고, 또 그것이 풍성하게 열매 맺기 위해 거름을 주고 물을 주는 그런 수고들을 통해, 이 시대 복음의 영광이 영광스럽고 찬란하게 빛난다. 복음의 영광을 이 시대 이 지역에 사는 이들이 맛보고 만지고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의 치열한 신학적 목회적 고민을

따라가다 보면, 교회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또다시 치열하게 고민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은 복음을 이 시대에 구현하려는 모든 선교사,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귀한 자료가 될 것이다. 리더교회 성도들은 '맨해튼에서 가장 생기 넘치는 사람들'이라고 불린다. 50여 명의 성도와 함께 개척한 이 교회는 현재 약 8천 명의 성도들이 주일마다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로 성장했다. 또한 3만 명 이상이 교회 웹사이트에서 팀 켈러의 설교를 다운로드해 듣고 있다. 덕분에 그는 '대도시에서 가장 성공한 기독교 복음 전도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영인 기자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 헤어칼라 전문점

미스타일 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30 up \$10 up**

\* 단, 칼라만 하시면 \$30up

매직 스테이리트  
**\$100 up**

프로페셔널 - 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칼라는 미스타일 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Tel: 213-739-1022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9:00 AM ~ 8:00 PM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 헤어칼라 할인권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 “칼빈 對 아르미니우스?”

칼빈 對 아르미니우스'일까 '칼빈과 아르미니우스'일까?

비록 인간의 자유가 늘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인류는 그 제한을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함으로써 그 자유를 최대한 확장하고 또한 누리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다.

인간은 교육과 연구와 법률과 제도를 통해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미지에서 응용으로, 침범에서 공존으로 나아감으로써 자유를 더욱 성취하고 향유한다.

그러나 신학적 담론에서 이 문제는 필연적 한계에 직면한다. 바로 절대자의 설계다. 영화 '매트릭스'의 한 장면이 연상되지 않는가? 인간이 전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자신의 운명에 대해, 특히 내세 혹은 영원을 믿는 기독교 신앙에서 절대적인 설계가 있다는 교리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에 허무를 가져다 준다. 이러한 고전적 신학 논쟁, 즉 예정론 논쟁은 오랜 것이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다.

다만 역사적으로 기독교 내에서 이를 최대한 설명하고 정리한, 대표적인 두 가지 해석이 있다. 바로 칼빈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다.

국내에서 요한 칼빈은 종교개혁자로, 야코부스 아르미니우스는 이단처럼 알려져 있다. 국내에 아르미니우스에 대한 출판물은 성지원이란 곳에서 나온 「아르미니우스 신학」 외에는 없다. 그렇지만 아르미니우스의 예정론은 신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설명 중 하나다. 랜디 알콘은, 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놀랍게도 쉽게 풀어냈다.

「인간의 선택인가, 하나님의 선택인가?」(원제 hand in HAND)는 지금까지 읽어 본 예정론 논쟁 책들 중 가장 담백하면서도 각 진영의 주장을 공정하게, 그리고 심플하게 다룬다(책의 중간중간에 나오는 도표들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신중하게 다 읽어보길 바란다!). 아니, 오히려 그의 프로젝트는 두 해설의 화해이다.

저자에 의하면 성경은 어떤 곳에서는 인간의 선택이 자신의 영원을 결정한다고, 또 다른 곳에서는 신의 주권이 인간의 영원을 행위와 상관없이 이미 결정했다고 말한다. 한편으로 아르미니우스주의도 신의 주권을 말하고, 칼빈주의도 인간의 선택을 말한다. 즉 본래 성경이나 신학은 둘 중 하나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성도 대부분도 일관성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진 않는다.

칼빈주의는 흔히 톨립(T.U.L.I.P) 교리를 고수하는 자들로 인식되지만, 사실 그 중 'L(limited atone-



인간의 선택인가, 하나님의 선택인가?  
랜디 알콘  
토기장이 | 368쪽

ment), 즉 제한 속죄를 뺀 4대 교리를 믿는 칼빈주의자도 많다. 랜디 알콘은 칼빈주의 내에서도, 아르미니우스주의 내에서도 몇 가지 의견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 일반적으로 양 극단에 하이퍼 칼빈주의와 열린 신론(open theism)이 있다(토기장이 출판사는 이를 개방적 유신론이라고 번역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용하는 칼빈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에는 양립론·몰리니즘·자유지론 이렇게 셋이 존재한다.

저자는 우선 서로에 대한, 칼빈주의의 인간의 선택을 무의미하게 만들며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신의 주권을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 각 진영에서 가장 열렬한 신학자들을 끊임없이 인용한다. 아르미니우스주의 신학자 로저 울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고, 칼빈주의 신학자 R. C. 스프로울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여전히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외에도 랜디 알콘 책의 장점은 우리가 의심할 만한 모든 구절을 다루며, 정직하게 학자들의 발언을 인용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미 학술적 서적이 있음에도 알려 준다(그가 추천한 책 두 권은 「Four views on Divine Providence」, 「Predestination and Free will」 이다).

앞서 설명했듯, 일반적으로 수용하는 세 견해(양립론, 몰리니즘, 자유지론)는 대칭 저울, 빗금친 막대, 집합 도표 등을 포함한 그림과 함께 잘 설명된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 자유의 조화를 결국 비율적으로 설명하는데, 이 중 가장 필자가 선호하는 견해가 몰리니즘이다.

이는 마치 바둑에서 고수가 '예지해서' 어딘가에 두면, 하수는 그 계획 안에서 자유롭게 두지만 결국 전체 판은 고수에 따라 흘러가는 것과 같다. 몰리니는 이를 '중간 지식'이라

고 표현한다. 이처럼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개연성 있는 가상 사실(counter-factual)은 성경 도처에서 발견된다(렘 38:17-18; 겔 3:6-7; 마 12:7, 24:43; 고전 2:8).

양립론은 그분이 악을 허용하기도 하고 통제하기도 하시는 것이며, 자유의지론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악도 허용하신다는 것이다. 랜디 알콘은 이 중 어느 것이라도 그리스도인은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단, 열린 신론 혹은 개방적 유신론에 대해 신도 알콘은 매우 단호하다. 이는 피조물의 선택에 대해 신이 알지 못함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랜디 알콘에 의하면, 그것이 열핏 보기에 신께 비극에 대한 책임을 돌리지 않는 합리적 이론 같지만, 사실상 모든 일이 신의 뜻 안에서 일어난다는 신학이 오히려 더 비극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를 준다.

랜디 알콘은 그래도 신의 주권에 다소 무게를 두면서, 그것을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유에 대한 훼손이라고 보다는 오히려 신께 의존할 수 있는 희망이라고 말한다. 인간의 선택이 신의 주권을 좌절시키지 못함은, 억압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이다.

물론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기 힘들다. 「악의 역사(전 4권)」를 쓴 제프리 버턴 러셀은 “아무리 악을 선으로 바꾸는 능력이 신에게 있다 할지라도, 전쟁에서 아무 죄 없는 어린이의 얼굴에 네이팜탄이 터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회의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이며, 신에 대한 신뢰, 역사 속 인간의 책임, 비극을 겪는 모두를 위한 위로라는 이 셋의 역동적 관계 속에서 어느 것이 정답이라 잘라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랜디 알콘이 버린 ‘열린 신관’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저자의 실천적 제안은 간단하다. 칼빈주의나 아르미니우스주의 모두 서로의 장단점을 인정하되, 오해를 없애고 진지하게 서로에게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랜디 알콘의 자서전적 고백으로 이 서평을 마무리한다. 평신도뿐 아니라 상호 입장에 대해 공격적이거나 한 모든 목회자와 신학생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나는 과거 아르미니안주의자였던 시절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한 공로로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 이제 칼빈주의자가 되었지만 사람들이 로봇에 불과하다거나 하나님이 인류의 대부분에게 무관심하신 분이라고 믿은 적은 한 순간도 없다.”

서평가 · 번역가  
진규선 목사

# “전능하신 유일신 하나님을 숭배해야”

칭기즈칸의 삶과 세계 정복사를 재구성하다



칭기즈칸  
헤럴드 칸  
현실과미래사 | 276쪽

이 저자의 생각이다.

물론 이 조항은 공개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칭기즈칸은 백성들을 분열시키거나 그들에게 잠재해 있던 종교적 분쟁의 불씨들을 자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프랑스 왕의 평화 사절로 몽골을 방문한 프라 루브루키에게 “우리 몽골인들은 신이 한 분이라고 믿고 있고. 그리고 우리들은 그와 직접 통하는 꿈은 마음을 갖고 있고”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한다(274쪽). 비록 다른 종교에 대해 관대하였으나, 그는 사마니즘 신자였다.

칭기즈칸의 통치 말기, 칸(Kahn)에 대한 충성은 절대적인 것이었다. 군주에 대한 배신은 결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들은 말과 행동으로 군주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을 표현하였다. 또 그들은 서로에 대한 예절을 지키며, 먹을거리가 부족할 때에는 서로 아낌없이 나누어 먹었다고 한다.

그러나 “자기들끼리 서로 돕고, 다른 민족은 압살한다”는 것이 야사의 기본 정신이었다. 칭기즈칸은 부족 간의 싸움을 피하기 위해, 그들을 다른 부족과의 싸움에 몰두시켰다(84쪽). 그는 자신의 통솔 능력을 확신했으며, 따르는 자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움직이는 말솜씨가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를 위해 헌신한 군대는 어질뿐 유목민 부대가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잘 훈련된 중무장 기병대(86쪽)’였다.

저자 헤럴드 칸에 따르면, ‘과괴자 칭기즈칸’이 부순 장벽은 암흑시대라 불리는 중세가 세워 놓았던 것이었다. 칭기즈칸이 닦아 놓은 도로 덕분에, 유럽인들은 중국 예술을 감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유럽인들은 커다란 의식 변화를 겪어야 했다.

저자 헤럴드 칸은 미국 콜럼비아대 출신의 역사 저술가이다. 특히 중국어와 아라비아어에 통달한 그는 이 책 ‘칭기즈칸’에서, 자신이 수집한 귀중한 사료와 뛰어난 상상력으로 몽골 영웅의 삶과 세계 정복사를 재구성하고 있다.

한국교회독서문화연구회 대표  
송광택 목사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코모더명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나는 담임목사입니다**  
I AM PASTOR

가슴이 고되고 영혼이 고된 삶  
이것이 평생 살아 있는 사람의 고통이나  
영혼이 고과 곁하는 영적 고통  
오늘을 사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한다

김성진 지음 / 220면 / 10,000원

**성경 속 여백 여행**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의 이야기이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이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남긴 진솔한 은혜의 이야기이다. 다 채워지지 않은 성경의 긴 여백 속을 함께 여행해 보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추천하는 책이다.

- 저자는 예리한 분석, 관조자의 눈, 번득이는 아이디어, 새 시대를 직시하는 패러다임, 그리고 깊은 신앙심을 이 책에 모아 놓았다. 그러므로 신자들 불신자들은 누구나 부담 없이 진리의 광맥을 찾아 접할 수 있다.

- 김철환 목사 추천사 중에서  
이중구 지음 / 358면 / 13,000원

**바로 그 교회**  
JUST THE CHURCH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 그 교회 그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되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고자 힘쓰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책이다.

김성진 지음 / 412면 / 15,000원

저자 김성진 목사 ● 목회컨설팅연구소 소장 ● 교회와 목회 전문 컨설턴트 ● 교회와 목회 코치 ● 영적 동기부여 강사 ● 경영컨설턴트

한글인터넷주소 쿨란. 쿨란출판사 홈페이지 www.qumran.co.kr 주소 서울 중구구 회화장길6 Tel 747-1004 쿨란출판사





Some 270 youth attended the recent Truth Matters Conference that took place at Church Everyday in Northridge, CA.

## 'Truth Matters Conference': Equipping Youth to Defend Faith

BY RACHAEL LEE

How can youth students wisely navigate discussions about religion, morality, and ethics when confronted by their peers or even older figures such as teachers? What are some habits that could help them to maintain their faith even when they are faced with doubts?

These are among the questions that the recent Truth Matters Conference, which took place from April 1-3 at Church Everyday, aimed to answer.

This third Truth Matters Conference wa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two in that it wasn't outright focused on apologetics themes, but was focused more on equipping youth students on living out their lives as Christians.

Pastor Kevin Yi, who has been serving as the youth pastor at Church Everyday for 13 years, said one of the reasons the staff decided to shift the focus this year was that there was a shift in the kinds of questions they received from their youth students.

"Whereas before, youth students asked a lot of questions about apologetics, recently, their questions have been more about morality and ethics," Yi shared.

"For example, they would ask questions like, 'My friend is gay — how do I engage with him as a Christian friend?'"

Looking at the conference long term as well, Yi said he hopes each conference will touch on different topics that are relevant at that time, and that it will be a space for youth to be trained and equipped to grow as a Christian.

"I felt like the youth students sometimes get too dependent on the emotional highs they get from summer or winter retreats," said Yi. "Thinking in the long term, I wanted them to be equipped and trained so that they can apply their faith into their daily lives as they go into college and become working adults. And my hope is that their faith would also be more consistent, rather than volatile."

Michael Sherrard, the director of Ratio Christi College Prep, first discussed how to defend faith through respectful interactions. Christians can respect others well by "living well," "being prepared," "using appropriate tactics," and "being humble," Sherrard said, addressing an audience of some 270 youth students.

"As an apologist and pastor, I listen and ask more questions than I make statements," Sherrard said.

Asking questions such as, "How did you come to that conclusion?" or "How would you resolve that evil?" helps to allow the other person to examine whether his or her own conclusions have good logic or evidence, he explained.

When faced with a question that has a difficult or unknown answer, Sherrard advised against saying something like, "You shouldn't have to know the answer to that; just have faith," and instead encouraged Christians to be able to admit that they don't know the answer.

"You will never know all of the answers, and you don't have to know everything to effectively share what is true," Sherrard said. "People don't need experts; they need people who will respect and love them."

The conference also featured sessions focusing on topics such as engaging with the issue of homosexuality, how a Christian worldview presents the best explanation of reality, how to be an influence to culture, and how to contend for the Christian faith. Caleb Kaltenbach, author of 'Messy Grace' and lead pastor of Discovery Church, and Greg Koukl, adjunct professor of Christian apologetics at Biola University, also spoke at the event.

## OC Community Joins Sa-Rang Church for Easter Celebrations

BY RACHAEL LEE

Sa-Rang Community Church in Anaheim, CA, held its annual 'Easter Hope Festival' on March 26 during which over 2,000 individuals of the surrounding community came and enjoyed various services including free health screenings, free haircuts, one dollar sales, family photos, various cuisines, free nail art, face painting, arts and crafts, live music, and more. A sermon about the Easter story was also preached during the event.

About 1,000 members from the church volunteered at the event, and many of the 60 booths were taken on by specific small groups in the Holy Wave ministry (the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 of Sa-Rang). Groups of church members could be seen walking around and praying for visitors from the community.

"I'm glad that I get to celebrate Easter by coming to this event," said Curtis Gamble, who is currently homeless and works to help other homeless individuals to receive the care and shelter they need. This year was his first time at the Easter Hope Festival, but he has been to another event hosted by the church a couple of years back.

"The people here just make you feel so comfortable," Gamble said.

This annual event began eight years ago with a pastor's conviction for the church to proactively serve members of the surrounding community. Since then, the event has grown in scale and members of the community are well aware of the festival. Many expectantly wait for the event each year.

"I've been coming to this event for four years now," said Mike Toney, a resident of Cypress who works as a custodian at Knott Avenue Christian Church. "I love the warmth of the people, it just makes you feel really happy. People pray for you and just make you feel so welcome. It's an event I really look forward to every year."

But for those who may not know of the event, volunteers from Sa-Rang go out into the community two to three weeks before the event to hang door posts on people's door knobs, and place post cards on car windows, inviting them to the event.

"Our main goal is to show them the love of Christ," said Sunny Park, the young adults pastor of the Holy Wave ministry. "That's why we want to pray for them -- we want to pray for those who are sick, and encourage those who are broken hearted. And ultimately, we want the lost to hear the gospel message."



Haircuts and other services were offered at Sa-Rang's Easter Hope Festival.

## Interview with Asian American Pastors, XXX: 'We Must Love as God Loves'

BY RACHAEL LEE

"I want to pass on the baton to young people, so that they can pick it up and run — and I'll be the cheerleader," said Pastor Young Chae, as he started waving his hands animatedly, continuing, "I just envision myself saying to them, 'You can do it! Go John! Go Steve!' And them saying to me, 'Thank you Pastor Young for believing in me.' That's what I envision. I want to provide whatever I can so that they can run for the glory of God."

Chae is the senior pastor of YeshUSAhm Church in Garden Grove, CA, which he planted in January of 2015. The church currently has about 20 first generation Korean adults, and about 20 English-speaking, Korean American youth and young adults.

One of his primary passions, however, lie with building up and investing in the next generation.

His heart for young people actually began during his military career, Chae shared. Chae was an active duty soldier in the U.S. Army for 23 years, which included a 14-month deployment to Iraq.

"Being a military man, I always worked with young people. The military is filled with young people," Chae said. "The young people are the most active soldiers, and

they're the heartbeat of the military."

While working with them, he said he had a passion to motivate them and guard them so that they can perform even better than he did.

"They're much smarter and much more well-informed, with so much more energy and even more integrity," Chae said. "I think they can really make this world a much better place than the world that I inherited."

One way he tries to invest in young people today as a pastor is through discipleship trainings, which are held once each week on Saturdays.

Professors from Biola University's Talbot School of Theology — Chae's alma mater — are invited to discuss questions about the end times, apologetics, and theology, among other things.

"They have a lot of questions," Chae said referring to the young people he has encountered. YeshUSAhm also has a section in its church website in which visitors can ask questions about their faith.

"The majority of the questions are about things like dealing with sin, how to get eternal life, and the end times," Chae explained. Through discipleship trainings like the ones he hosts on Satur-

days, and through personal relationships, Chae said, "I try to help them find those answers. I try to help them as biblically as possible, so that they can solve those problems."

But youth and young adults have more than intellectual cravings, Chae said. They crave love.

When asked what the best way is to engage with young people, he responded, "We have to love them just like God loved us. We have to love them unconditionally, and they will come back to us."

"When there is a lack of love, they go astray and look elsewhere, outside of churches, families, schools, to look for that love," Chae said. "If the church, or the family, or the school, do not have love, they are not interested."

That's easy to say, but how does Chae live that out personally?

Interestingly, he said, "I tell them like it is."

"I do not paint any pretty picture of how they are at the given moment," Chae said.

But, he added, "I embrace them unconditionally as well."

The young people don't seek a love that just covers things up, but one that knows their flaws, but still chooses to love, Chae explained.

Chae also sends them Bible verses from time to time, he said. Though he as a pastor may have



Pastor Young Chae is the senior pastor of YeshUSAhm Church, which is currently located in Garden Grove, CA.

limited influence in a person's life, he believes that continued exposure to the Bible has the power to continually transform their lives.

"Scripture has the power to change lives," he explained. "I've seen this through the lives of so many young people through the years, and Scripture has changed my own life as well."

This is the ultimate result that Chae hopes to see through teaching and loving these young people and every person that he ministers to: that their lives would be changed.

"When I decided to plant our church after praying and fasting

about it, the Lord gave me three things to focus on," he said. "First, to focus on Jesus alone; second, to focus on faith alone; and third, to focus on love alone."

"Instead of just going to church every Sunday and just going through the motions of Christian life, I want us to live the life that God wants us to live. I want the church to impact the world with the gospel of Jesus Christ. When people come to our church, I want their lives to be transformed and sanctified so that they could serve the Lord in the way that He desires, not just in the way that seems right to them."

###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2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Sunday School: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PASTOR SUNG CHANG

#### Charis Missio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church



Sunday Services: 11 AM & 12:30 PM

PASTOR HAROLD KIM

####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 Mississippi Governor Signs Comprehensive Religious Freedom Bill

BY CHRISTINE KIM

Mississippi's Republican Gov. Phil Bryant signed a religious freedom bill into law on Tuesday.

HB 1523, also known as the "Protecting Freedom of Conscience from Government Discrimination Act," was approved by the House and Senate earlier last week.

Though several religious freedom bills have been voted on in several state legislatures, Mississippi's bill has been met with particular controversy because it reaches farther than any other religious freedom bill has before. Not only does the bill protect clergy and churches from hosting same-sex marriages and private religious organizations from hiring individuals who do not share the same beliefs, among other things, but it also allows state employees to refuse to provide marriage licenses or perform marriages that are against their religious beliefs.

The bill also explicitly protects the religious beliefs that: (a) Marriage is or should be recognized as the union of one man and one woman; (b) Sexual

relations are properly reserved to such a marriage; and (c) Male (man) or female (woman) refer to an individual's immutable biological sex as objectively determined by anatomy and genetics at time of birth."

Bryant said he signed the bill to "protect sincerely held religious beliefs and moral convictions of individuals, organizations and private associations from discriminatory action by state government," according to a statement released on Twitter.

Opponents say that it sanctions discrimination against LGBT people. Representatives from ACLU said that they were "deeply disturbed."

"Freedom of religion is one of our most fundamental rights as Americans, but that freedom does not give any of us the right to harm or mistreat others," ACLU of Mississippi Executive Director Jennifer Riley-Collins said in an email to the Clarion-Ledger.

In contrast, supporters of the measure say that the law protects those who want to abide by their religious beliefs about marriage.

"This bill strikes an important bal-



(Photo: U.S. Dept. of Agriculture / Wikimedia / CC) Mississippi Governor Phil Bryant.

ance that recognizes the new realities created by the Supreme Court's Obergefell decision — legalizing same-sex marriage nationwide — while offering reasonable accommodations for citizens whose sincerely held moral and religious beliefs remain opposed to such practices,"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s Ethics and Religious Liberty Commission research assistant Josh Wester and director of policy studies Andrew Walker wrote in an article titled, "Will Mississippi Lead the Way?" urging Gov. Bryant to sign the bill.

The law is set to go into effect by July 1.

# Evangelicals Least Engaged in Presidential Campaign, Barna Group Study Finds

Evangelicals are least likely to closely follow the 2016 campaign, according to a national survey, the results of which were released on March 24.

The study, conducted by Barna Group, divided respondents into five faith groups according to their religious beliefs and found that those who identified as evangelical Christian were the least engaged at this point in the presidential race.

20 percent of evangelical Christians said they're following the campaign "very closely," while voters who identified with other faith groups — Judaism, Islam, Buddhism, as well as those who identified as religious skeptics such as atheists, agnostics, and unaffiliated —

reported higher levels of engagement at 41 percent and 36 percent, respectively.

Barna Group's survey also found that while evangelical Christians are least likely to follow news about the election "very closely," they are the most likely to believe that the results of this year's presidential elections are "extremely important to the future of the United States" at 78 percent.

Unlike the pattern seen in the past four presidential elections, Catholic voters were found to have reported following the race more closely than Protestants.

"...it's certainly surprising to see this segment delay their focus on the race

... a group that is waiting to see what happens with the nominating process before devoting a greater mind share to election news," George Barna, an analyst for the 2016 election polling, commented according to the Barna Group.

"They are conscious of what is happening but not yet fully focused. We expect to see their attentiveness climb substantially over the next few months," he expressed.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hrough an online poll from January 28 through February 4, 2016 by Barna Group with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869 registered voters of adults 18 and older.

# Canada Closes Office of Religious Freedom

The new liberal Canadian government has decided it will no longer fund the office of religious freedom, and allowed it to close at the end of last month.

Since November, when the Liberal Party of Canada came to power, it indicated that the office's funding will not be renewed after it expired.

The office was set up by the Conservative Party when it was in power in 2013, and was managed by a few employees with a \$5 million budget. The department promoted religious freedom and tolerance worldwide through education and youth movements.

The organization has worked to distribute children's books to promote pluralism among Bangladeshi children in collaboration with Aga Khan Foun-

dation, documented injustices faced by non-Muslims in Pakistan, and engaged with youth in Iraq, Lebanon, and Syria to increase inter-religious dialogue to promote religious freedom.

The office of religious freedom also incorporated Holocaust awareness events and genocide prevention into international educational curricula, conducted exchange programs to bring together Ukrainian youth from different ethnic and religious backgrounds, mediated conflict in Nigeria's Plateau State, and promoted journalist sensitivity in Myanmar to combat hate speech and religious intolerance, among its many other programs.

However, the new government led by Prime Minister Justin Trudeau has indicated that it will take a non-reli-

gious approach towards human rights, but has not yet stated any new projects or offices.

"We now have one less strong partner and one less voice for religious freedom," Katrina Lantos Swett, commissioner of the 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told WORLD Magazine. "This is a very unfortunate message to send out to the rest of the world at this time."

Former Canadian Prime Minister Stephen Harper, who established the office in 2013, had dedicated it to Pakistani politician Shahbaz Bhatti, who advocated for religious minorities including Christians and Hindus in his country. He was assassinated in Pakistan in 2011, when he returned to his country after visiting Canada.

# Pastor of China's Largest Church Released from Imprisonment

A pastor from Chongyi Church -- China's largest megachurch -- was released after spending three months in "black jail," which falls outside the country's penal system. But, he still remains under "residential surveillance."

Pastor Gu Yuese was arrested on charges of "embezzlement," but human rights and Christian activists said that he was likely caught in the government's radar after vocally opposing the state-sponsored cross-removal campaign.

The pastor was detained in January, but formally arrested on February 1 on embezzlement charges. However, the government never provided any details about the accusation.

Chongyi is a state-approved church with over 10,000 members, and Pastor Gu was held in good repute by the Communist Party before he openly protested against the cross-removal campaign since 2014, which has destroyed about 2,000 crosses. He was expelled from his position as the church leader 10 days before he was detained.

Prior to his imminent arrest, he issued an open letter addressed to his congregation, warning about a, "rare freezing, cold [set to] befall Hangzhou," which is the capital city of province Zhejiang, also called the Jerusalem of China for its high concentration of



(Photo: Simon Wade/Flickr/CC) Chongyi Church in Hangzhou, where Pastor Gu Yuese served as the lead pastor.

Christians. He was apparently referring to the government's crackdown on crosses across the city.

"Chongyi Church is also experiencing unprecedented trials," the letter reads. "Everyone must equally rely on the Lord's grace to confront [this hardship] and triumph over it... Increasingly, we feel God's good intentions in this storm. It will refine every impurity in our ministry team to the greatest extent and compel us to love the Lord and people more purely."

It was the first time since Communist dictator Mao Zedong's rule and the Cultural Revolution that a clergy

holding such a high position was arrested.

According to a Reuters report, China is conducting the worst domestic crackdown in two decades on human rights and Christians under President Xi Jinping. Nearly 1,000 rights activists were detained last year alone - and almost as many as in the previous two years combined.

Chief Executive of 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Mervyn Thomas said: "We welcome news of Pastor Gu's release but note with concern that he is not actually free as he is under residential surveillance."

Sunday Services: 9 AM & 11:15 AM  
Children's Ministry: 9 AM & 11:15 AM  
Youth Group Service: Sundays at 11:15 AM

PASTOR KEITH PARK

**Church of Southland**

1380 S. Sanderson Ave, Anaheim, CA 92806  
T. (714) 209-7349 / churchofsouthland.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www.cornerstonetv.com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PASTOR STEVE CHOI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Sunday Services: 9 AM & 10:45 AM  
Children's Ministry Services: 9 AM & 10:45 AM  
Youth Services: Sundays at 9 AM, Wednesdays at 6:30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0:45 AM

PASTOR TIM PARK

**Evangelical Free Church Diamond Bar**

3255 S. Diamond Bar Blvd, Diamond Bar, CA 91765  
T. (909) 594-7604 / www.efreedb.org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to Youn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org

Sunday Services: 9:45 AM

PASTOR PHIL KIM

**The Home Church**

19271 Colima Rd. Suite A/B,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Sunday Services: 10: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0:30 AM, 12:15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2:15 PM

PASTOR KIWON SUH

**New Life Vision Church**

4077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323) 373-0110 / www.nlvc.org

Sunday Services:  
8:30 AM, 9:45 AM & 11:15 AM

PASTOR PAUL KIM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 (760) 753-2535 / www.redeemersd.org

Sunday Services: 1 PM  
Youth Group Services:  
Sundays at 11 PM, Thursdays at 7 PM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ynccla.org



**PH**  
**PuenteHillsHyundai**  
**SUPER STORE**

72개월까지  
0%이자가능

소비자 만족도 서부지역 1위! • 미국에서 가장 큰 단일 현대 딜러! • 미국에서 에쿠스를 가장 많이 파는 딜러!

# 새 봄 맞이 SALE

**HYUNDAI**  
SEIZE THE MOMENT  
SALES EVENT

**NEW**  
**2016 HYUNDAI**  
**ELANTRA SE**

Lease It For **\$58** +Tax

All In Stock With  
MSRP **\$19,375**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Signing, \$2,000 Lease Cash, \$500 Competitive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THE EXCITING APPEAL OF ELANTRA SPORT"**

**NEW**  
**2015 HYUNDAI**  
**SONATA LIMITED**  
With Ultimate  
Technology Pkg

Lease It For **\$88** +Tax

All In Stock With  
MSRP **\$32,730**



**"DESIGN RENEWED BY INNOVATION"**

Panoramic Sunroof, Navigation System W. 8" Touch Screen  
Integrated Memory System For Driver Seat & Side Mirror & More!!

36 Months Closed End Lease, \$5,999 Due At Signing, \$4,000 Lease Cash, \$500 Lease Loyalty Cash,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NEW (Demo)**  
**2016 HYUNDAI**  
**EQUUS SIGNATURE**

Lease It For **\$399** +Tax

3 In Stock With  
MSRP **\$62,450**

Stock # Gu106201 / Gu104147 / Gu101688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Lease Cash \$8,500, Competitive Owner Coupon \$1,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Grad Rebate \$400,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A PERFORMANCE VEHICLE WRAPPED IN LUXURY"**

**NEW**  
**2015 HYUNDAI**  
**GENESIS SEDAN 5.0L V8 Engine**

Lease It For **\$299** +Tax

All In Stock With  
MSRP **\$52,705**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Lease Cash \$4,250, Competitive Owner Coupon \$1,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Grad Rebate \$400,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It's an honor to be nominated 2015 North American Car Of The Year Finalist"**



찰리 정  
626.513.4981



스티브 장  
626.723.3336



저스틴 길  
626.723.3584

**HYUNDAI**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HYUNDAI**  
Assurance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http://www.phhyundai.com)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